2012년 통권 제19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9. 2012.
http://cafe.daum.net/artjb

#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 우렁각시의 꿈

김 한 하

가끔 나는 누군가의
우렁각시가 되고픈 꿈을 꾼다.

남루하고 우울한 그의 집을
구석구석 거품 많이 나는 비누로
깨끗하게 닦아 놓고

하얀 찔레꽃 향기 가득
넘치게 채워 두리라.

맛있는 한 끼의 식탁과
그가 나를 상상할 수 있는
촛불 하나 밝혀두고

하룻밤 꿈에서 깨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우렁각시 꿈을 꾼다.

**김 한 하**

· 백제예술대학 방송시나리오극작과 졸업 · 대한문학〈시〉등단 · 〈온글 문학〉편집장
· 〈숲길 따라 물길 따라〉공저 · 〈우렁각시의 꿈〉개인 시화집 출간 · 〈쉬엄쉬엄 걷는 전주 생태길〉공저
· 〈나무 할머니의 옛날이야기〉 출간

표지작가안내



**삶의 투영** / 30×30cm / ceramic, 2012

## 이 명 자 (Lee, Myungja)

- 개인전 1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 전라북도미술대전 입특선 4회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입선1회
-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1회
- 춘향미술대전 입특선3회
-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 한국미협 회원
- 인터넷묵객 서예문인화협회 추천작가
-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사
- 주소 : 561-76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29번지 서호아파트 201동 608호
- 전화 : (자택) 902-5895 (핸드폰)010-8004-5895
- 메일 : mjlee0117@hanmail.net

전북미술

전북미술

이천십이년 12월

제19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이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본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회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사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지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 나의작업노트

07 고형숙
08 박지예
09 안순금
10 이광원
11 이명자
12 이봉금
13 이승훈
14 이우정
15 이진숙
16 이철량
17 이철규
18 이환배

## 시

19 **가을을 보내면서** | 이광원

## 작업실탐방

20 **문연남 작업실을 찾아서** | 이철규

## 수필

24 **화장수업** | 전우연

## 전시리뷰

26 고형숙 개인전
28 이봉금 개인전
30 이우정 개인전

## 작가탐방

32 **유경상 교수의 '흙의 탐방'** | 박지예

## 회화이론

34 **탐구하는 예술가 '세잔'** | 김영숙
38 **산수화에 나타나는 나무에 관한 성향 소고** | 이승훈
50 **한국 초충도의 회화사적 고찰과 현대적 모색** | 이봉금

## 미술관을 찾아서

56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을 보고** | 안순금

## 전시소개

60 **제1회 전주한옥 아트페어** | 이봉금

## 나의여행기

62 **중국 서안 · 낙양 기행문** | 이승훈
72 **터키 여행을 다녀와서** | 이진숙
78 **북경미술기행-중국 현대미술의 요람을 찾아서** | 이철규

## 여적

86 · 87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9.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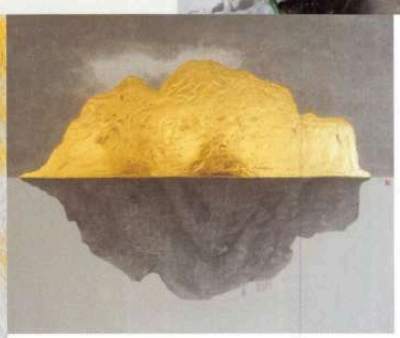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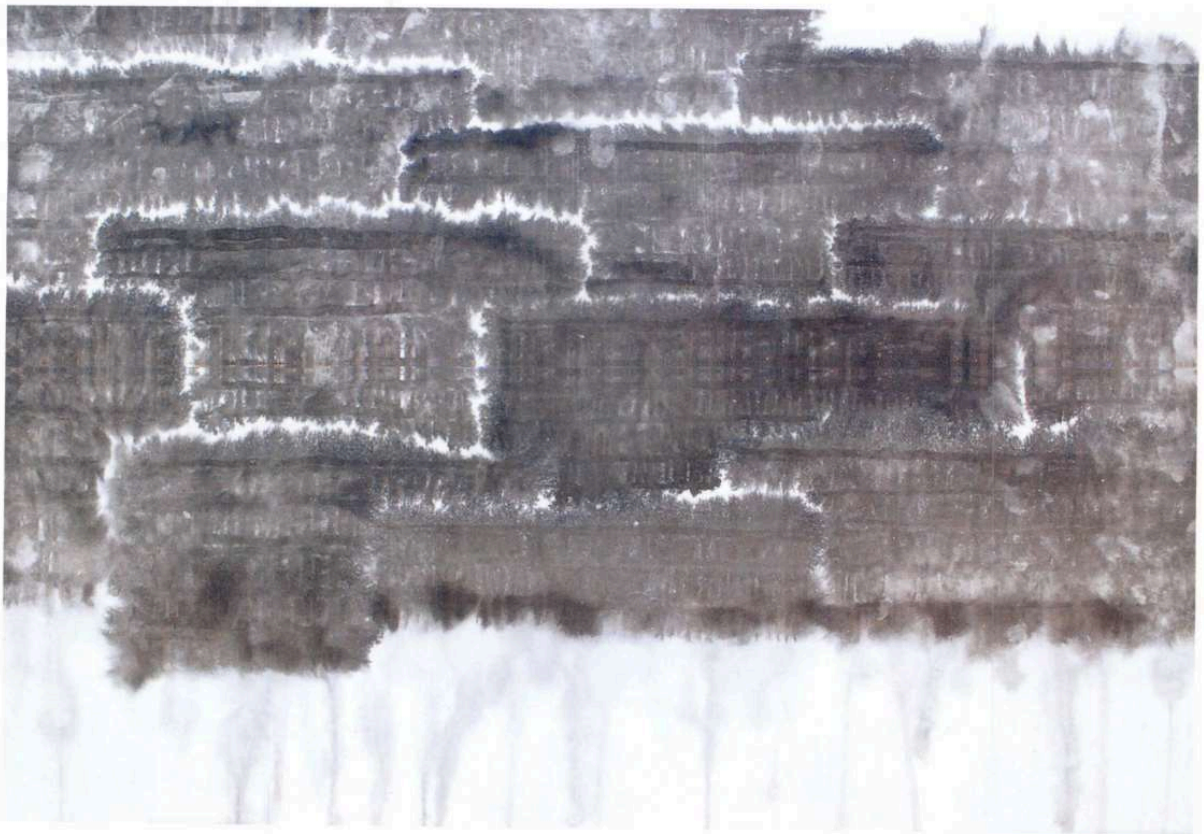
# 전북회화

2012. 8. 16(화)~8. 21(일)

Opening _ 2011. 8. 16(화) pm 6:00

교동아트센터

고형숙 박지예 방정엽 서진숙 안순금 이광원 이명자 이봉금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철량 이환배



검은 도시 / 53×34cm / 한지에 수묵

**고 형 숙** (Ko, Hyoung-sook)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과 졸업 *개인전 7회 및 단체전 70여회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삼태마을 206-2번지(우 565-842) *전화 : 016-653-1833 *E-mail : mimi1001@hanmail.net



心-자화상 / 70×140cm / 수묵담채

소통(疏通)이라는 주제로 마음이
통하여 서로 관계를 갖게 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상태 즉, 바라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 즉, 바라지 않고
이어지는 마음, 이런 심상의
이야기를 표현 하고자 한다.
재료는 잘 번지는 화선지를 택하고,
수묵, 채색을 사용하여 엷은
화선지의 느낌을 살려 엷게 채색하여
작업 하였다.
기법은 선을 사용하거나 선이 없는
평면의 모양, 물의 번짐을 이용한
중첩의 표현으로 서로의 뭉그러짐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물화를 그릴 때 닮음과
닮지 않은 괴이함에 있어서
석도의 "불사지사(不似之似)"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박 지 예** (Park, Ji-ye)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동대학원(졸) •전북대 박사과정 •원광대 강사, 전통고 강사역임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12 봄바람전 •2012 전북대 박물관 기획전
•現) 하니미술학원장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전화 : 010-2658-7822



**여름-연못** / 35 × 63cm / 수묵

연못의 연꽃이 다 시들어 버린 계절이 다가왔지만 여름의 그 싱싱하던 연잎에서 나는 산을 보고 싶었다. 그 속에 산등선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이왕이면 나무와 바위도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림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연(蓮)은 많은 민화와 문인화에 등장하며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옮긴 소재이다. 그러한 연(蓮)을 그려보았다. 집 연못에 피어 있는 백련은 2년 전 옮겨 심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제법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있다.

은색의 빗줄기가 떨어져 방울을 만들고 다시 연못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예뻐 아침저녁으로 보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라보고, 보고 또 보며 무더운 여름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연(蓮)을 담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 안 순 금 (An, Soon-geum)

•개인전 3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0-28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433-1번지
•전화 : 010-2635-6314 •E-mail : f12-4@hanmail.net



꿈 / 162.2×133.3cm / 장지, 먹, 채색

## 흔 적

접어 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움을 꺼내 봅니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땡볕에 목마름을 견딘 하얀 튜울립
세월에 얼룩진 그리움이 나를 지켜 주었기에
멀리 떠난 그대는 내 꿈의 실체일 뿐
내 안에 사는 그대 생각으로 하얀 튜울립을 꺾지 못하고
빈 손으로 들길을 걸었습니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개인전 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焚奐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현)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0-3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삶의 투영** / 32×22cm / ceramic,2012

삶의 이야기를 흐르는 물로 표현하다

흘러가는 물을 물끄러미 보노라면, 우리의 삶도 흐르는 물과 같다는 생각이다.
소리없이 자신을 비우고 흐름 속에 몸을 맡긴다.
흘러가는 물은 표현하기도 많이 어렵다.
고민 끝에 처음 선택한 것은 비워둠이었다.
그러다 불현 듯 지두화로 물의 흐름을 나의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어졌다.
나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 듯하여 자주 지두화를 그린다.
요 근래는 물과 같이 살아가 듯 물의 표현 속으로 들어간다.
흘러가는 물은 우리내의 삶과 비슷하다.
굽이굽이 흘러 넓고 큰 강으로 나아가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우리의 삶 역시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다.
나는 물을 표현하면서 보여지는 물만이 아닌 우리의 삶을 담아보고 싶다.
흘러가는 물처럼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물로 그려보고 싶다.
계곡에서 조약돌까지도 환하게 비춰주는 물, 탁하여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하는 물 등... 그래도 물은 흐른다.
우리의 삶도 정화되리라.


##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개인전 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전북회화회, 한국미협 회원 *인터넷묵객 서예문인화협회 추천작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1-76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29번지 서호아파트 201동 608호 *TEL : (자택) 902-5895 (핸드폰)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공존(共存)** / 120×80cm / 장지에 먹과 채색

공존(共存)은 초충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초와 함께 친화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곤충들이 곁들여 있다. 또한 물고기는 유년기 추억을 나타내고 있다.

표현방법에 있어 식물의 잎과 줄기부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움직임이 적은 음(陰)의 성질을 나타내며 이를 담묵으로 표현하였고, 꽃을 피우고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식물의 동적인 부분과 활동적인 곤충은 그 성질이 양(陽)을 띄고 있어 채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의 하단부분에 식물을 담고 있는 그릇의 형상은 식물의 종(種)을 담고 있는 대지를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림 전반적으로 보이는 여백은 현시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으로 여러 가지 형상과 현상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여백이다.

**이 봉 금** (Lee, Bong-Keum)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 대학원 졸업 •개인전 제4회 •초대전 및 단체전 다수
•주소 :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아파트 101/504 •전화 : 010-9277-7231 •E-mail : pumucle200@naver.com



**연꽃이야기** / 50호 / 紙本彩墨

힐링이 없는 꽃은 없을 것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사랑으로 얻는 고통은 자기 스스로만 고칠 수 있다."라고 했다. 연꽃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으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힐링꽃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요즘 힐링(healing)이 대세인 것 같다. 힐링 푸드, 힐링에코, 힐링 트래킹, 힐링뮤직, 힐링댄스...

고 장영희 교수는 그의 저서 '어떻게 사랑 할 것인가'에서 짝사랑 하라고 했다. 이루어 지지 않지만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만 짝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도 외롭고 고달픈 짝사랑의 길이랍니다. 연꽃을 보면서 그 무지했던 주변을 한 번만이라도 더욱 관심을 같고 살펴봅시다. 보는 것(視)이 아니라 살펴(察)보자구요. 나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 이 승 훈 (Lee, Seung-hoon)

•全州大學 美術敎育科 및 同 大學院 美術學科 卒業 •個人展 第3回 •2010 全北아트페어 參加 •그림과 시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出版
•韓國美協, 益山美協, 山墨會, 全北繪畵, 아트 會員 •群山大成中學校 在職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E-mail : misege@hanmail.net



**바램** / 50호 / 광목에 혼합재색

## 이농 아농

그대 마음이 산이되고 내 마음이 물이되어 함께걷는 들녘이
내... 너의... 뜰이되고 잠시 머물러 쉬어 머무는곳
잔잔한 풀잎은 침대가 되고 솜털 같은 구름은 포근한 이불이 되어 달콤한 깊은 잠도 청하고
바람이 들려주는 관현악 연주속에 날개달라 날아도 보고 눈뜨면 지천에 널린 풍성한 먹거리...
똥배 나올만큼 새콤달콤 맛보다가 스르르 하늘이 잠기면 편안한 그대 가슴에 갇혀 있다가
또 세상이 열리는 다음날...
내 사랑하는 그대 손잡고 나드리가리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한국화 구상회, 건지회 회원
•(우 560-77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 현대아파트 101-202 •전화 : 010-3299-2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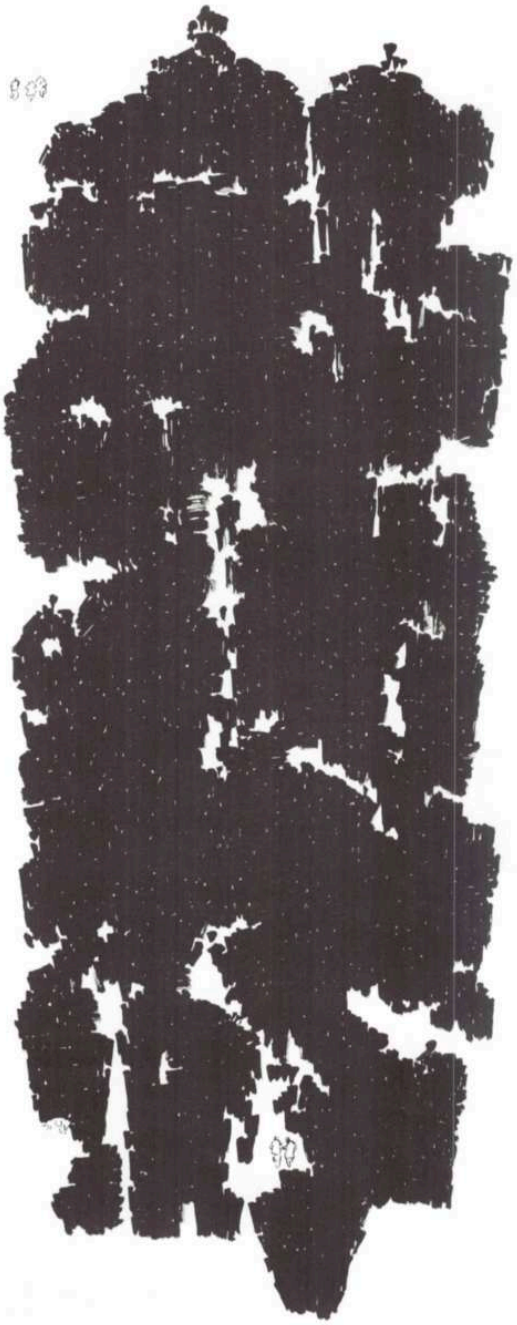


**기다리는 마음** / 90×118cm / 요철지, 채색

연거푸 세 차례의 태풍이 우리 집에 다녀갔다.
덕분에 우리 밭은 많은 생채기가 났다.
턱없이 많은 열매를 달고 있던 감나무는 그만 제 양팔을 모두 찢기우고 말았다.
'그러게 뭣하러 그렇게 많은 열매를 달고 있었니?'
원망 아닌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 뿐 아니라 제 무게를 감당 못하고 옆으로 누워버렸다.
이렇게 거센 태풍이 떠나고 난 뒤 쏟아지는 무서운 햇살
태풍도, 무서운 햇살도 꿋꿋하게 이겨낸 해바라기.
나는 이 녀석이 좋다.
그래서 이 녀석을 평생 곁에 두고 싶다.
오늘도 난 이 녀석을 그린다.
종이에, 가방에도,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출품 *현)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회원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E-mail : waltzz@nate.com



holy city1136 / 75×160cm / 캔버스에 먹

본 작품은
도시의 빌딩숲을 떠도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전통적 산수형식과
현대적 조형어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철 량** (Lee, Choul-ryang)

•2005 한 · 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2006 중 · 한 현대수묵전(深圳 關山月미술관) •2007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2010 MANIF SEOUL(Hangaram Museum)
•2011 한국화 옛뜰에 서다(한가람미술관)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TEL : 011-650-9849



상생(相生)-합(合) / 91×73cm / 닥펄프에 금박, 채색

나의 작업은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닥펄프 원료를 사용 캐스팅 기법으로 약1cm의 두꺼운 한지를 만든 후 순금을 얇게 펴서 만든 순금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즉 닥펄프로 만든 한지 캐스팅 종이에 옻칠 및 아교를 사용하여 순금박을 붙이는 개금작업(일종의 도금작업으로 일반사찰 대웅전에 있는 목조로 만든 불상의 겉면에 옻칠을 하여 금박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 명제가 대부분 상생(相生)-합(合), Living Together-Unity을 사용하고 있듯이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작품 내면에 담고 있다.

민화에 나오는 자연과 하나 되는 아이콘들을 화면에 상징적으로 배치하여 자연과 인간, 음과 양, 평면과 입체, 구상과 추상 등의 조화로운 합(合) 즉 상생을 표현하였다.


## 이 철 규 (Lee, Choul-gyu)

*전주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6회(서울, 전주, 미국 등) *전북청년미술상 *대한민국청년미술상 * '한국의 미' 전(사비나갤러리, 서울)
*삼인삼색전(공평아트센터, 서울) *02!MANIF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풍경 · 산수 · 풍경 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전북도립미술관 - 엄뫼 - 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상해아트페스티벌(라이프스타일미술관, 상해) *홍콩호텔아트페어(만달린호텔특별전시관, 홍콩) *상해아트페어(상하이마트, 중국상해) *ART FAIR21 Cologne(슈타텐하우스, 독일쾰른)
*2012 KIAF전(KOAX, 서울) *작품소장: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전북도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전주역사박물관, 백운장학재단) *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주소 : 560-28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75-2 좋은하우스 2층 203호 *TEL : 070-7572-4247(집), 063-640-7205(연구실), 010-4279-3775 *E-mail : cicu111@hanmail.net



**돌무덤** / 100×70cm / 수묵담채

오래간만에 붓을 들었나

먹의 향기는 언제 맡아도 좋다

어렸을 때 자주 놀았던 들녘의 돌무덤이 생각난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곳에서 동네 장난꾸러기들과 함께 놀았던 추억이 남아있다.

세상살이가 싫증나면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겠지

##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섬 총원장 •주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진흥W-pak 107/1101
•전화:010-3673-1562, 063)283-6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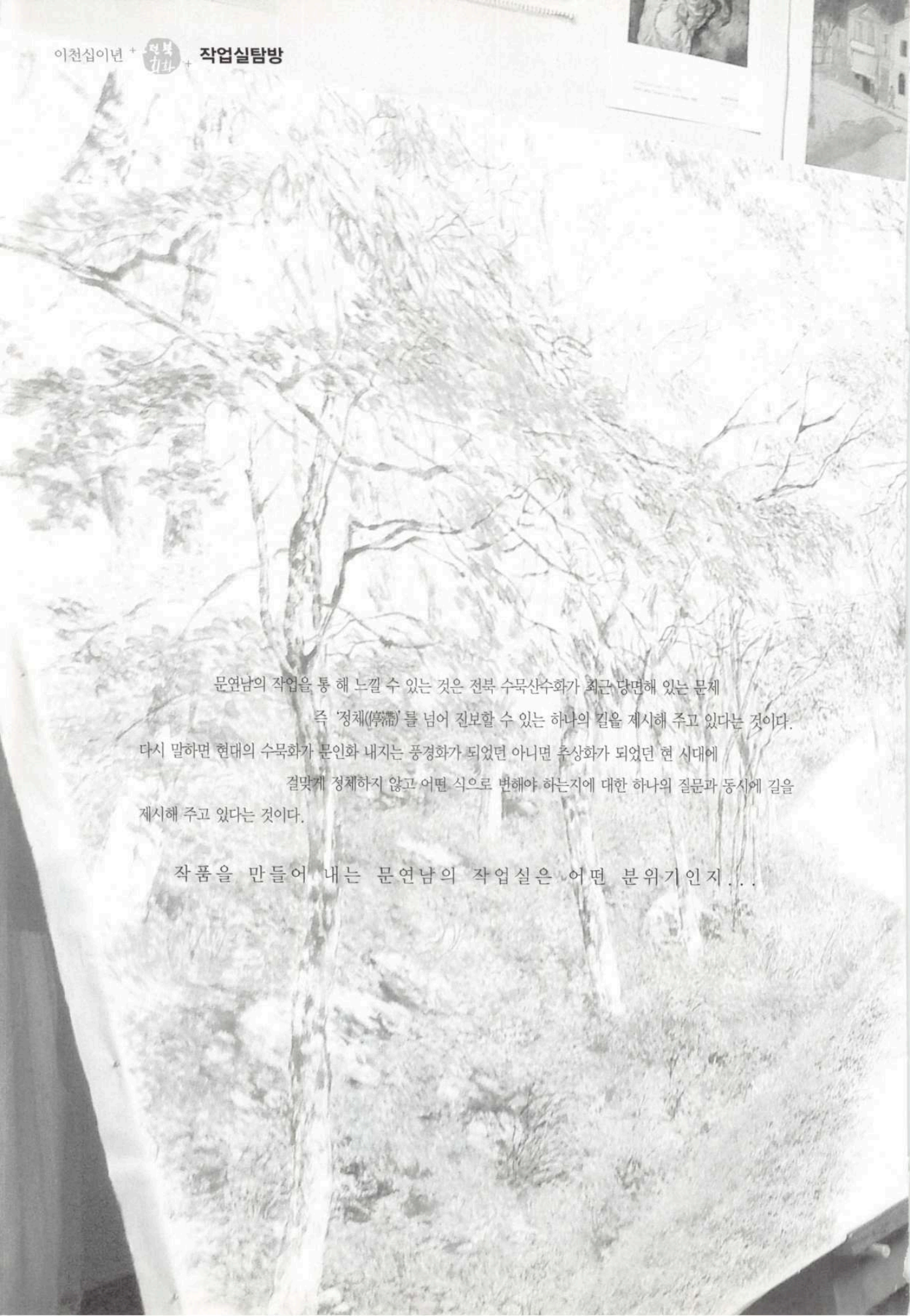
# 가을을 보내면서

이 광 원

내가 물들인 말이 강물에 씻겨가도
같은 사람 음성이다.
그 창가, 강변의 나무, 새털구름, 낙엽 떨어지는 소리
이 모든 것
생각이 깊어질수록
내 노래는 기도가 되고
눈물 젖은 속삭임이 되고
흐느끼는 물결이 되고
죄 없는 추억이 어찌 그리 미운 건지
잊었는데, 잊어서 깡그리 잃었는데
문득 와서 아리도록 그립다가
다시 멀어져 가는 건지
날리는 낙엽은 차가운 눈보라
가을, 햇살만
고개 숙인 나를 비추는.

**이 광 원** (Lee, Kwang-won)

· 자유문학으로 등단 · 국제 해운문학상 본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시인협회 회원
· 現전주문인협회 부회장



문연남의 작업을 통 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북 수묵산수화가 최근 당면해 있는 문제
즉 '정체(停滯)'를 넘어 진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수묵화가 문인화 내지는 풍경화가 되었던 아니면 추상화가 되었던 현 시대에
걸맞게 정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과 동시에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만들어 내는 문연남의 작업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 이소(以素) 문연남(文連男) 작업실을 찾아서...

**이철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최근 전주와 서울에서 2번의 개인전을 통해** 보여준 문연남의 수묵작업은 수묵의 근간을 이루는 수묵운용(濃淡과 渲染)과 서예와 문인화로 다져진 모필 운용 능력(筆力) 그리고 회화의 기본인 드로잉에 의한 형상표현능력(自然형상, 데생)등 탄탄한 기본기가 잘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실경을 바탕으로 한 산수화와 풍경화에서 표출되어 지고 있는 탄탄한 구도구성과 담담한 채색 표현능력은 그가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문연남의 작업을 통 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북 수묵산수화가 최근 당면해 있는 문제 즉 '정체(停滯)'를 넘어 진보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의 수묵화가 문인화 내지는 풍경화가 되었던 아니면 추상화가 되었던 현 시대에 걸맞게 정체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질문과 동시에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작업실은 어떤 분위기인지...

최근 제작 중인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 하던 차에 작업실 탐방을 빌미로 한국화가 김숙자선생과 박신혜작가와 함께 작업실을 방문하였다.

일단 그의 작업실은 소박하다. 20평 남짓의 작업실은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주 작업실, 그림창고, 차를 마시며 대화 할 수 있는 담소공간이다.

10평 정도의 주 작업실에서 以素만의 수묵산수화 작품이 탄생되고 있다. 그의 작품–주로 풍경화 작품–주로 풍경화 작품–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상당한 거리감과 구도구성력이 이 작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타고난 그만의 예술적 재능으로 밖에는 해석 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이소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묵산수화가 갖고 있는 정신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산수화가 채색화에 비해 정신적 이념적 세계를 추구하는 속성의 예술이라는 것은 산수화의 방법론적에서 수묵의 우위성을 가장 실감 있게 피력할 수 있는 데, 산수화의 이념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묵의 방법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좋은 산수화는 거의 수묵을 중심으로 한 것(담채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이며 이는 수묵의 정신이 산수화라는 장르의 이념체계에 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수묵의 이념적인 것들을 그의 두 번의 개인전 작품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제 그는 또 하나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업실 방문 시 한창 제작 중인 작품들에서 보여 지는 것은 강한 색채의 사용과 인물을 산수화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도에서도 일반적으로 산수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수평구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현대회화에 어울리는 경영(經營)을 위치(位置)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정체되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려는 세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다.

## 첫째, 색채의 사용이다.

색채는 금욕적인 사상과 상관관계가 있는 데 즉 동양에서는 예부터 색이란 정신적인 것, 이념적인 것의 반대개념으로 단순히 회화적인 의미의 색깔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인간 욕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적용되어왔다.

즉 색채는 장식적인 기능 띤 것 현세와 관련 수묵은 이를 초월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소는 이러한 사고의 틀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둘째, 인물의 도입이다.

과거 중국 당, 송, 명대와 조선시대를 통틀어 산수화에는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산수와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다. 인물의 표현들은 그리 어색하지 않고 산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잘 표현되고 있는 데 즉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순응하며 살아가는 상생의 도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편적인 산수화풍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산수화 나 풍경화에 인물의 표현이 사라지게 되는 데 이를 부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셋째, 구도의 혁신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수묵산수화에 적용되는 구도는 삼원법(三遠法)이다. 삼원법은 기운(氣韻)의 흐름과 거리감의 표현을 위해서 예부터 사용했던 방법으로서 수묵(水墨)과 여백(餘白)를 조화롭게 분할시켜 자연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소의 수평구도는 삼원법에 대한 과감한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의 산물이다. 현재에서 보여 지는 상황과 현실감을 충실하게 표현하되 자연의 모습을 뒤틀리게 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의 웅대함과 동시에 친근감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번 작업실 탐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연남만이 가지고 있는 수묵에 대한 전통성을 유지하되 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이 작품세계에 잘 녹아들어가 다음 작품전에 새로운 변신과 혁신으로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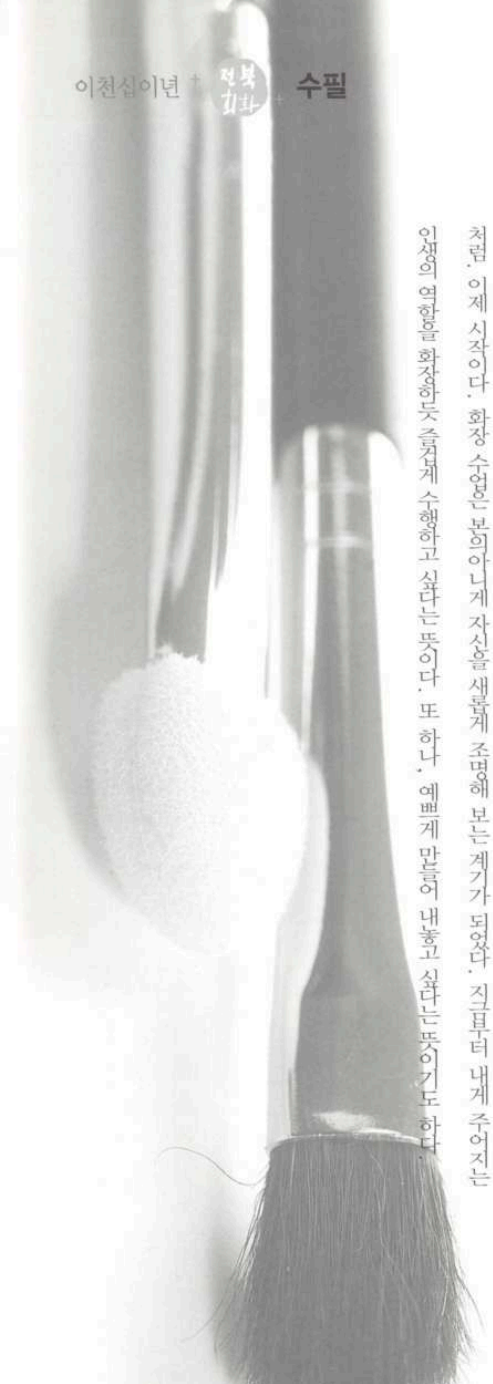
또한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나눈 딱딱한 작품세계이야기 보다 사람 사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더 다가오는 것은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지.... ▣

(2012. 10. 이철규)





20평 남짓의 작업실, 그림창고,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담소공간



# 화장수업

**전우연** (수필가)

지금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서고 싶다. 처음 무대에 서는 초급 배우처럼. 이제 시작이다. 화장 수업은 보희아니게 자신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역할을 화장하듯 즐겁게 수행하고 싶다는 뜻이다. 또 하나, 예쁘게 만들어 내놓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화장(化粧)은 화장품 따위로 용모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신체나 얼굴을 화장품을 이용해 보호하거나 단점을 보완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말하는데, 배우가 극중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가발과 의상 · 신발 따위를 갖추는 일도 화장으로 간주한다.

호텔 하우스키핑 부서에서 고객의 투숙 기간 동안 침대의 린넨을 교환하거나 객실을 정비 · 정돈하는 것도 화장이라고 표현한다.

의미야 어쨌거나, 어느 날부턴가 화장을 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부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정도의 기초화장이야 해왔지만, 이제 화운데이션 등을 발라 정작 메이크업을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것이다. 화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품이 없던 나로서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가급적이면 단장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터였다.

여자가 화장을 시작하는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찍 화장을 시작한 여자는 그보다 몇 년 앞설 수도 있겠다. 화장이 늦은 여자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즈음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도 아니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스킨과 로션을 바르는 기초화장 외엔 메이크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존중했던 내게 인공적인 아름다움도 배제할 것만은 아니라는 자각이 생긴 것은 왜였을까?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더라도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일까.

장식과 미에 대한 관심은 여성에게 거의 본능적인 충동의 발로라고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늦은 나이에 여자로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감추고 싶은 결점들이 생겼다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인 듯싶다.

화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 간혹 뷰티클래스에 참석하고 미용실에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화장에 관한 유용한



**전 우 연**

•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 수필집 〈자연으로의 유랑〉, 〈내일 이맘때에〉, 칼럼집 〈립스틱 짙게 바르고〉
• 전북관광지(익산 · 고창 · 부안 · 정읍 · 진안편) 스토리텔링 집필 • 現) 도서출판 이랑과이삭 편집인

정보들을 모아 메이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화장에는 생긴 것보다 입술을 예쁘게 그리는 방법도 있었고, 자연스러운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눈의 모양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뷰티클래스의 강사는 특히 내 입술을 칭찬했는데, 입술이 도드라져 그게 섹시해 보인다던가. 사실 그 동안 난 두툼한 입술이 오히려 콤플렉스였다. 예쁜 여자의 상징인 가늘고 날렵한 윗입술을 만들고 싶은 내게 강사는 오히려 두툼한 입술을 도드라지게 해놓고는 만족해했다. 눈 화장은 마스카라를 여러 번 덧발라 속눈썹이 풍성해 보이도록 연출한다는데, 이건 아무래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 포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나 할 짓이었다. 자기 전에 화장해보고 지우고 화장해보고 지우고.. 그렇게 하기 며칠.

고대사회에서 화장은 미적 · 성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본능적인 것 외에 성별, 사회적 지위, 계급, 부족 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화장의 기술은 도시 문명의 발달에 비례해 높아졌지만, 화장의 본질은 여전히 사회 속에서의 개인적 취향이나 미적 감각의 충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쨌거나 화장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느 것이나 자신의 내적 충족의 발로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장식적 의미의 화장, '메이크업make up'이 일반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전신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화장과는 약간 다른 미용의 뜻으로 쓰이는 '코스메틱cosmetic'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7세기 초였지만,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19세기 말이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화장품의 발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이 대중화된 것도 그 이후라고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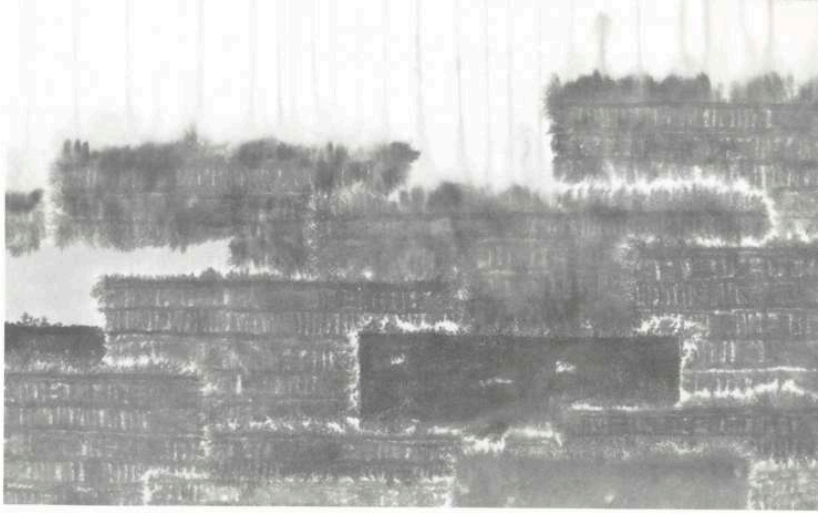
유명 배우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은 최근에 등장한 직업이다. 예전에는 없었다. 그만큼 화장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일 게다. 더욱이 이들은 초급 무대에 오를 때에는 메이크업이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어느 때는, 너무 정성을 들이는 바람에 어색할 정도의 짙은 화장이 되기도 하지만, 좀 어색해 보이는 얼굴을 굳이 가리려 하지 않고 길에 서 보기도 한다. 메이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는 때로 담대함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단지 외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커버해야 하는 결점이 얼굴에 나타나는 현실, 좀 젊게 보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넘어 마음 깊은 곳에 잠재했던 어떤 의식- 나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 마음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인생의 상처와 아픔 등을 또한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떤 이유로 정체돼왔던 나를 파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발로였다.

그래, 지금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서고 싶다. 처음 무대에 서는 초급 배우처럼. 이제 시작이다. 화장 수업은 본의아니게 자신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부터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역할을 화장하듯 즐겁게 수행하고 싶다는 뜻이다. 또 하나, 예쁘게 만들어 내놓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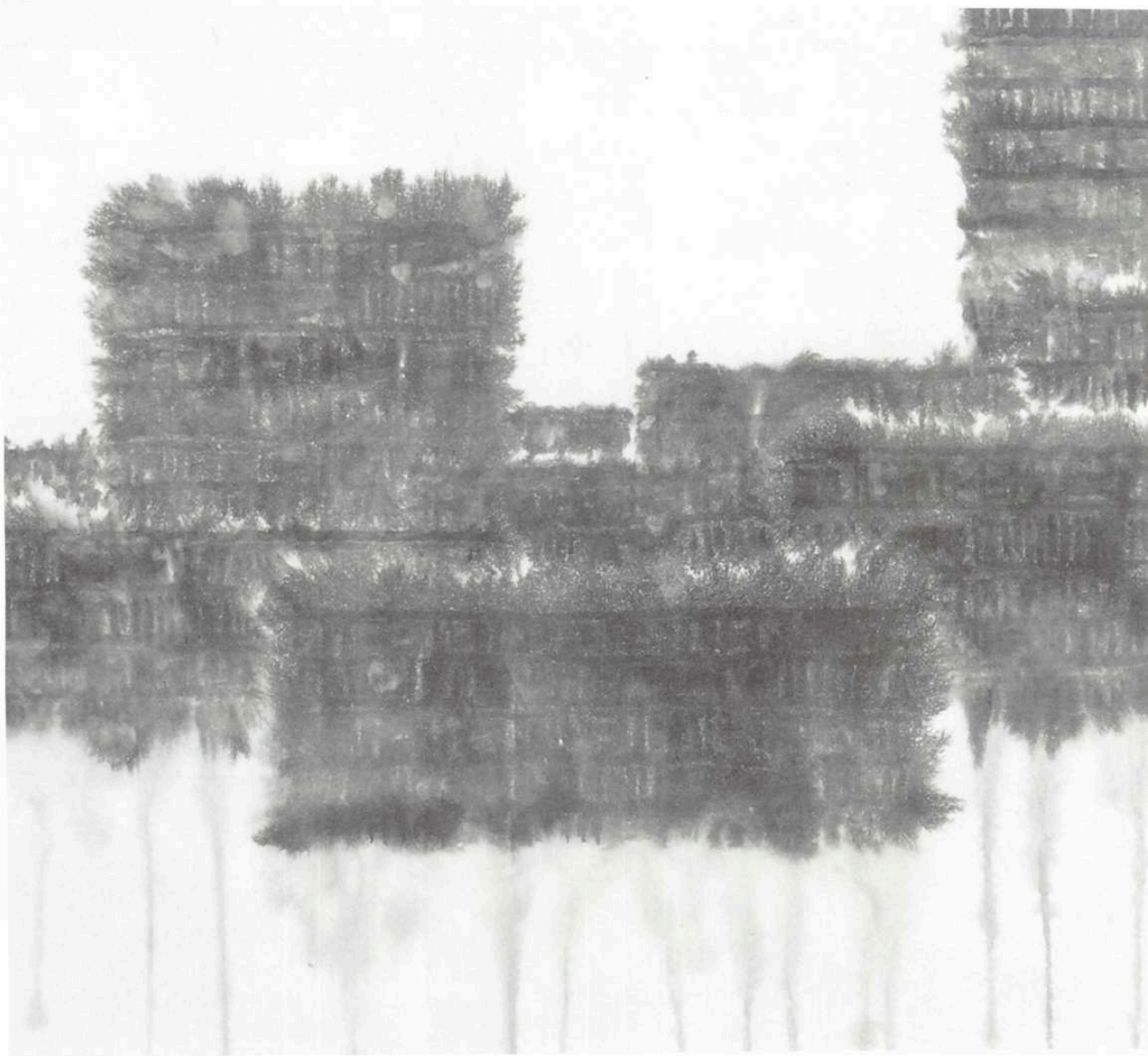




검은 도시 / 한지에 수묵

# 고형숙개인전 '검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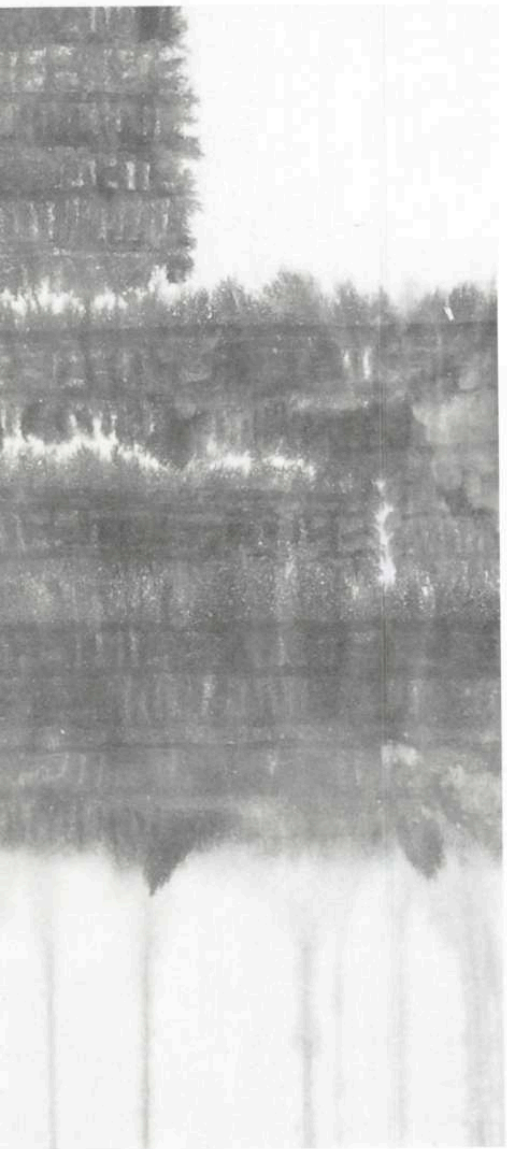
- 전시기간 2012. 10. 24(수)~10. 30(화)
- 전시장소 전주서신갤러리





검은 도시 / 한지에 수묵

검은 도시 / 53×34cm / 한지에 수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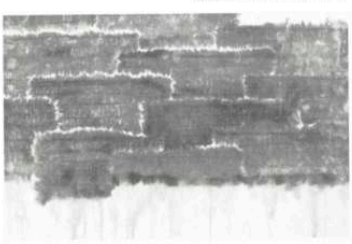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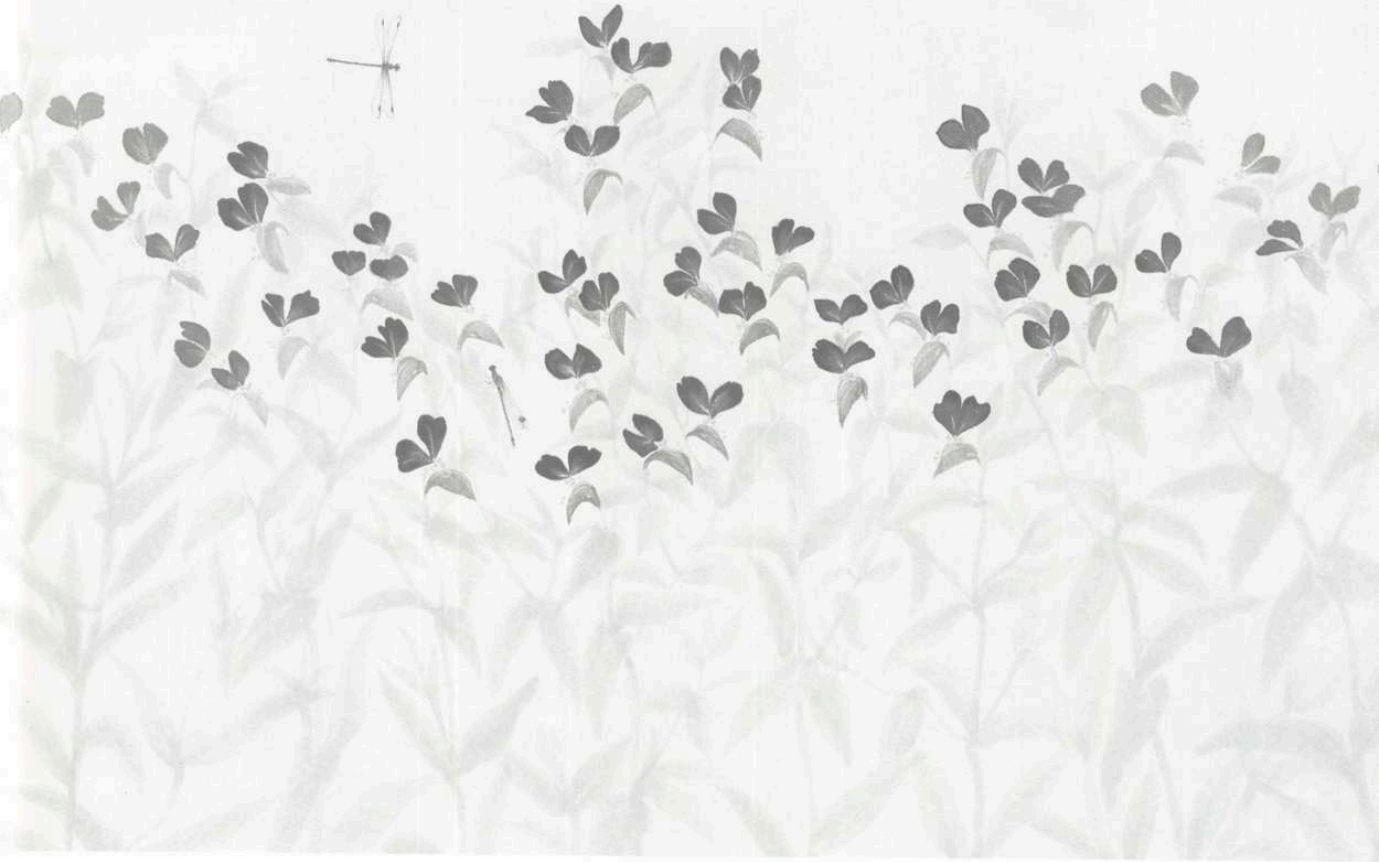
현재 나의 작업은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사회에서 도시는 자연의 새로운 풍경이다. 현대화 이후 도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도시 문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의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자연인 도시 안의 여러 가지 형상 중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서 있는 건물의 형상은 대도시 안에서 별개의 형상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수직과 수평의 건물이라는 구조로 인식된다. 나는 나의 작품 안에서 도시안의 건물의 구조를 패턴화하여 도시를 표현하고자 한다.

다양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외적 모습 또한 다양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삶의 욕망은 유사하다. 그들이 바라는 욕망은 패턴화된 도시의 형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도시의 형상을 빌어 인간의 욕망과 삶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검은 도시 / 한지에 수묵





공존(共存) / 80×60cm / 장지에 먹과 채색

# 이봉금 네 번째 개인전 '共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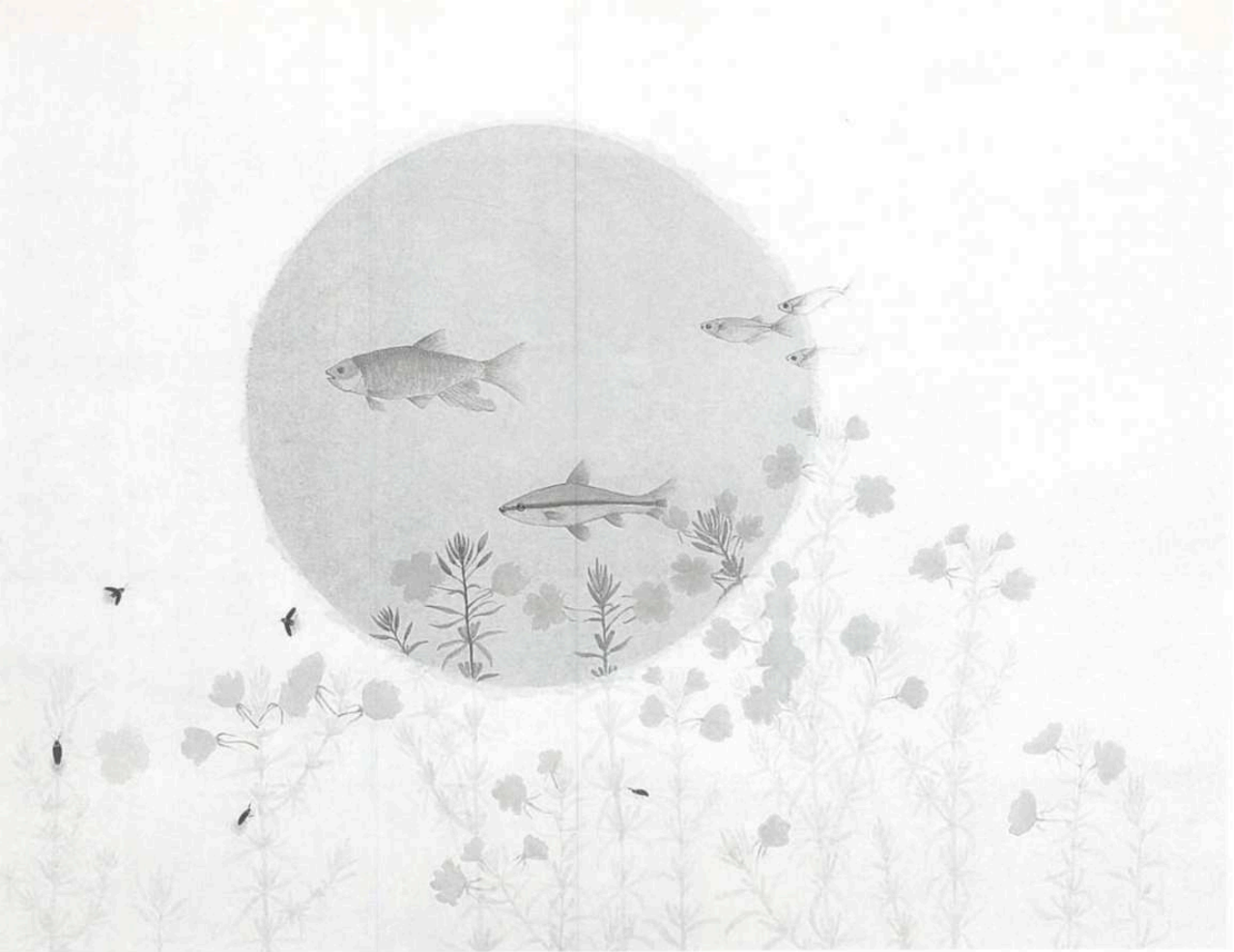
- 전시기간 2012. 9. 11(화)~9. 16(일)
- 전시장소 전주교동아트 스튜디오

*이번 전시는 전라북도 문진금후원을 받았음

공존(共存)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한다는 뜻외에도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 있다. 꽃과 나비를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다.

공존 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공존에 대한 네 번째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초충도는 자연스럽게 내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그림의 소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초와 그와 함께 친화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곤충들이다. 움직임이 많은 곤충과 자손을 멀리까지 퍼뜨리는 식물의 열매는 양(陽)의 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질을 상징하기에 채색으로 표현하고, 정적이고 소극적인 음(陰)의 성질을 지닌 식물은 담묵(淡墨)으로 표현하였다. 음과 양은 자연현상의 하나로 함께 존재한다. 이를 수묵과 채색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해석하여 표현하였다. ▣



**공존(共存)** / 120×80cm / 장지에 먹과 채색

**공존(共存)** / 120×80cm / 장지에 먹과 채색





바램 / 50호 / 광목에 혼합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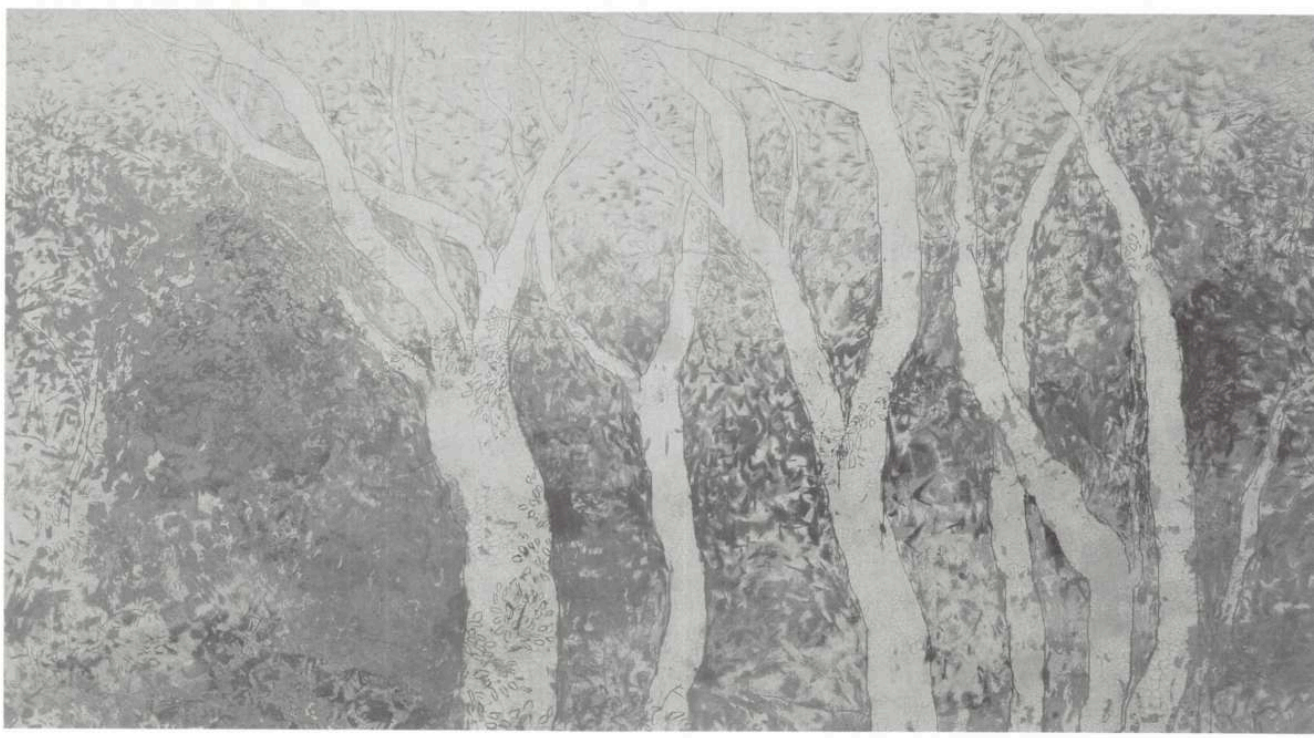


바램 / 50호 / 광목에 혼합채색

悲音 a sad resonance

# 이우정 개인전

- 전시기간 2012. 10. 3(수)~10. 9(화)
- 전시장소 토포하우스(서울특별시 인사동)



바램 / 50호 / 광목에 혼합채색



바램 / 250호 / 광목에 혼합재색



# 유경상 교수의 '흙의 여행'

글 **박지예** (전북회화회 회원)

조형행위는 생명의 본능에서 시원 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원소들이 적절한 조화로 완성된 생명체가 알을 깨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을 것이다.

흙을 매체로 표현된 도자조형은 불을 에너지로 하여 비로소 생명을 얻어 그 의미를 우리 앞에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자문화는 실로 오랜 역사 속에서 성격과 모습을 달리하며 우리생활 공간과 문화를 풍요롭게 전개한 실존인 것이다.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 등은 우리의 창의적인 예지의 능력을 맘껏 발휘한 흔적 이였으며 독(항아리)은 우리의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음식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마당한 곳을 조형공간으로 장식한 훌륭한 조형물로써의 역할을 하여 왔다.

유경상 교수는 전북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도예가 이다. 그는 원광대학을 졸업하고 흙과 불 사이에서 열심히 작업에 정진해 왔다.

그의 도예가로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국의 독(항아리)의 소재를 사용하여 가장 흙의 본질적인 표현에 도달하는 것과 장식이나 용기로서의 도예를 극복하고 환경으로서의 일부분인 듯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추구한다.

그가 비록 전통적인 가마방법이나 장작불을 사용하는 것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무게가 200 kg이 되고 105cm×150cm×55cm의 흙으로 구워진 조형물의 스케일에 도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단 한가마를 소성하기 위해 4일간의 끈질긴 불과의 싸움을 해낸다는 것은 그의 집념의 단면이기도 하다.

유경상 교수의 작품은 외부는 밋밋하고 그 내부는 유기적인 형태들을 들여다보게 조성한 것으로서 마치 한껏 벌린 목젖의 융기들을 상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관된 조형은 유기체적인 상호의존적인 형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그의 도조적(陶彫的) 작품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융화" 또는 "인간들의 화합과 공전"이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다. 흙이야 말로 가장 원시적인 재료이며 모든 생명을 키우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고향이다.

그렇기에 도예가야 말로 자연이 흙을 통해서 형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흙과 인간이 융화]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는 흙과 불 또는 자기 자신과의 융화를 통해서 [인간의 화합과 공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어린 시절 외가 문중의 [독직이] 작업 모습을 보았던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과 같이 독이 실외 공간에 놓여 짐으로서 자연의 공기 속에서 숨 쉬듯이(발효식품까지 잘 보전한다)그의 작품을 자연의 마당으로 되돌려 주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실도 마당 있는 집에 넓은 정원에 작품들과 어울려 전시 되어있다. 그래서 그의 조형물이 자연의 공간(외부의 공간)에 놓여 진다는 것은 고향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기에, 환경으로서의 작품을 되도록 꿈꾸는 것이다.

끝으로 거대한 도조(陶彫)는 악기 같기도 하고 신체의 기관 일부를 확대 한 것 같기도 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같기도 하다. 유경상 교수는 현재 백제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앞으로 도예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자연과 하나 되는 그의 작품에 성원을 보낸다. ▣

유경상 1 - 2회 개인전 팜플렛 - 한봉림 - 이건용 서문 인용 -



# 탐구하는 예술가
# 세.잔.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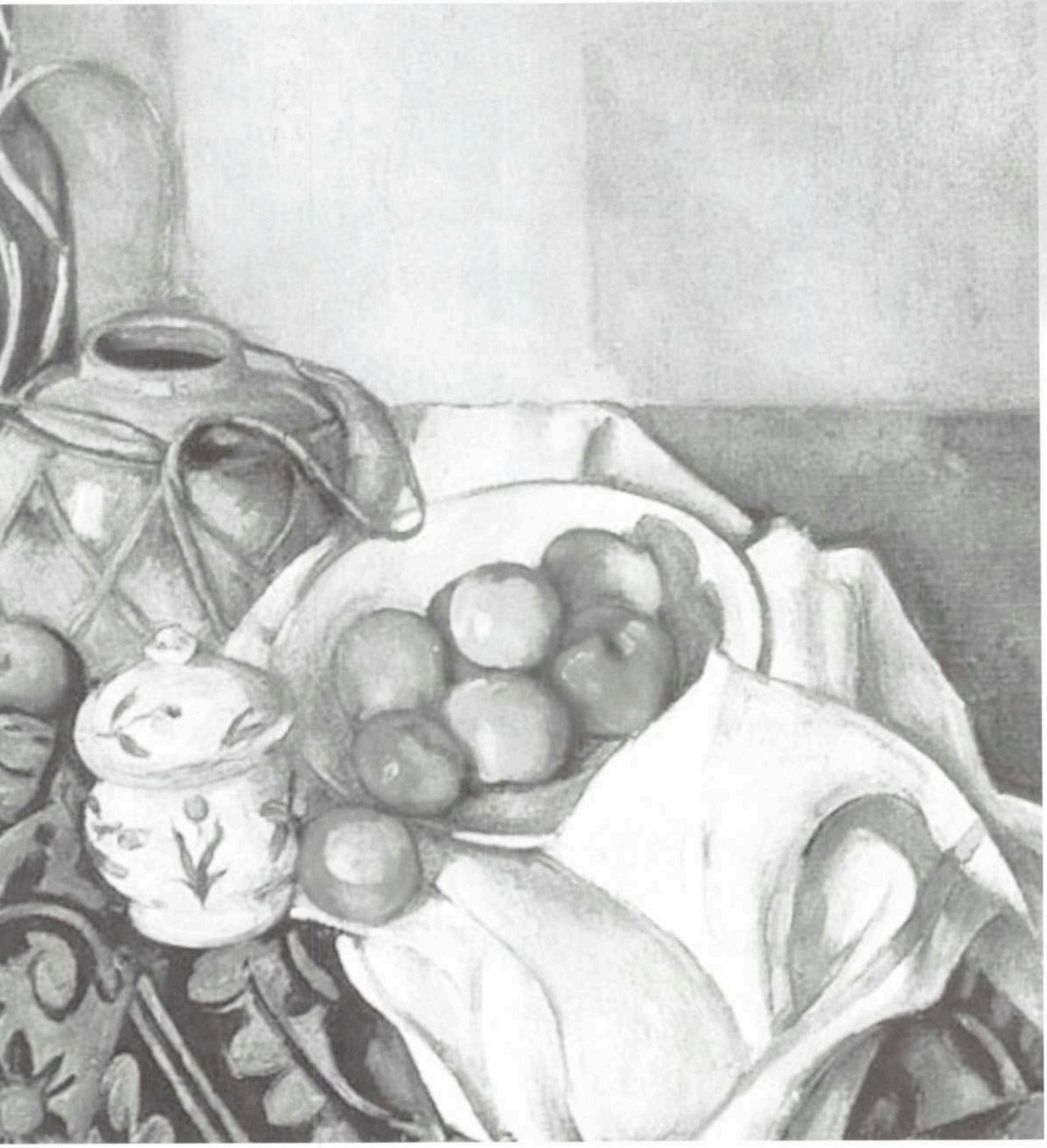
세잔의 그림은 근대 인상주의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나아가는 분기점을 이룬다. 인상주의 의 성과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인상주의의 한계를 돌파해내려는 의지와 열정을 평생 간직했던 세잔. 이렇듯 서양 미술사에서 현대 미술의 시작을 이루어낸 세잔의 공적은 일견 화려하기 그지없으나 그의 삶은 지긋 지긋하리 만큼 오랜 기간의 번민과 방황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세잔은 인문주의 전통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부르봉 고등학교 시절 에밀 졸라와 함께 호메로스와 빅토르 위고에 열광하며 친하게 지냈지만 그의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은 에밀 졸라로 하여금 그의 위대한 화가로서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은행가로 자수성가한, 강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 세잔은 엑상프로방스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는 등 청년시절 심한 방황과 우유부단함을 보여 준다. 에밀 졸라의 권유에 못 이겨 파리에 갔지만 파리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의 은행에서 일하고는 또 다시 파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 세잔. 세잔이 자기 뒤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세잔을 떠나보내지만, 세잔은 에콜 데 보자르에 또 다시 낙방하고, 1866년, 1869년, 1870년, 1875년, 1879년에 계속해서 살롱전에서 낙선한다. 드디어 1885년에도 살롱전에서 낙선한 세잔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작품을 출품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된다. 미술 평론가들의 온갖 악평에 시달리던 세잔에게 마지막 충격을 가한 자는 아마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졸라이리라. 졸라는 1886년 소설『작품』에서 세잔을 모델로 하여 야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예술가를 그렸는데, 이를 계기로 세잔은 졸라와 오랜 기간 관계를 끊는다. (그의 작품이 세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50이 넘어서였다.)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셋 있는데,
첫째가 이브의 사과이고, 둘째가 뉴턴의 사과이며, 셋째가 세잔의 사과이다.
평범한 화가의 사과는 먹고 싶지만 세잔의 사과는 마음에 말을 건넨다."

-모리스 드니-

Still Life [1890-94, oil on canvas, private collection)]





세잔 [Paul Cezanne, 1839~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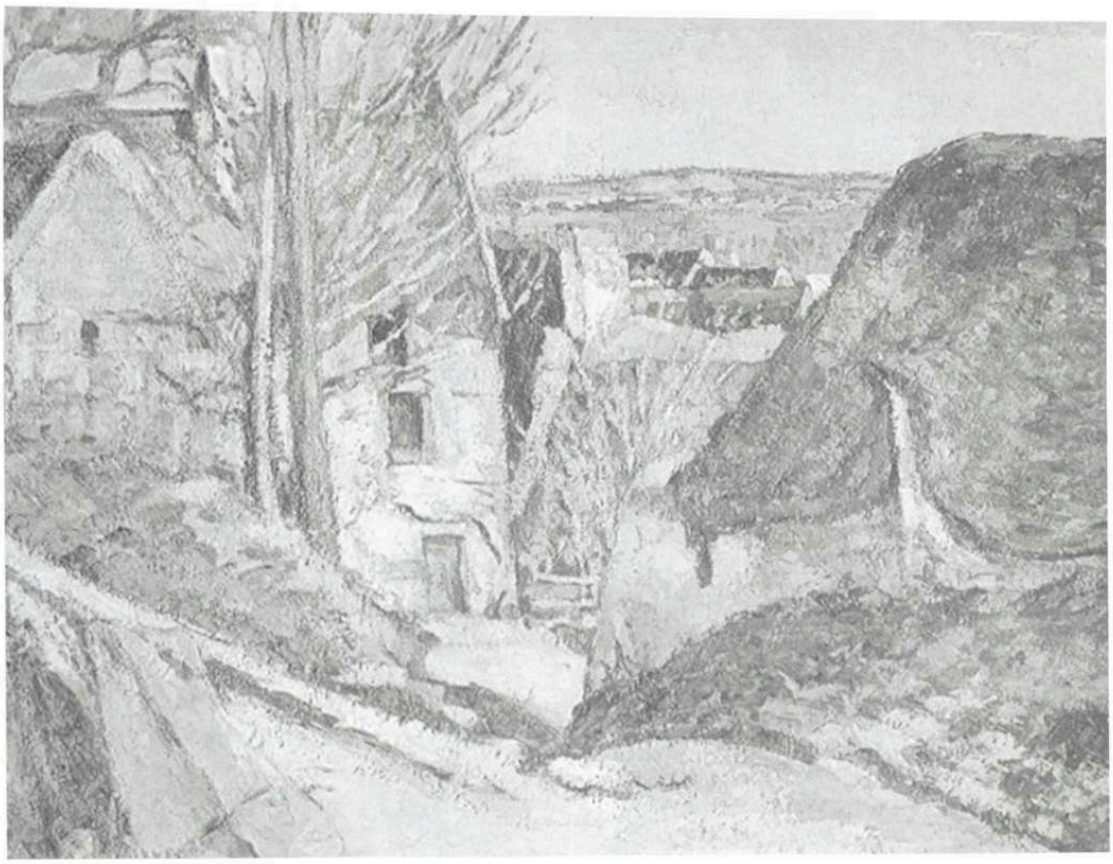


Medan [Chateau and Village, 1885, watercolor, Private collection]

이러한 외형적 좌절 속에서도 세잔의 그림에 대한 집요한 노력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 세잔은 인상주의 그림이 지나치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함을 느끼고, 무언가 자연 내부에 있는 변하지 않고 영속적인 것을 묘사하고 싶어 한다. 즉 빛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대상 그 자체를 그리고 싶어 하는 세잔. 얼핏 보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요구에 충실하기 위해 세잔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사과를 몇 시간이고 관찰하고, 모델에게 몇 시간이고 똑같은 동작으로 서 있기를 요구했던 세잔. 이제 세잔은 피사로에게서 배운, 대상을 색조의 농담으로 구축하는 방법 위에서 점차 오로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잔 속에 있는 이중성, 즉 (젊은 시절의 그를 지배한) 매우 충동적이며 여린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나중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 그의 높고 강인한 정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의 인성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오로지 예술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그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무덤과도 같은 단조로운 생활에서 탄생한 그의 느림의 미학의 정신은 1890년대 초반에 그의 유년 시절의 친구였던 뉘마 코스트가 에밀 졸라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에 웅변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좋은 녀석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유지하고, 고통스러운 좌절을 잊은 채, 고집스럽게 만들어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이네."



LA MAISON DU PENDU, A AUVERS [1872-73, 캔버스의 유채, 55.5×66.5cm]

Une Moderne Olympia [1873~1874, 오르세 미술관, 파리]

2011 내용권 제한



정선 『인곡유거도』 연도미상 [종이에 엷은 색 27.4cm×27.4cm]

## 산수화에 나타나는
# 나.무.에 관한 성향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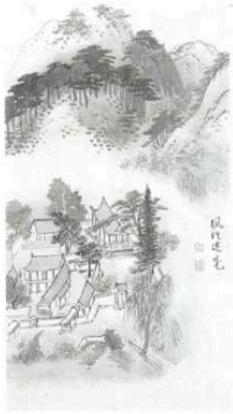
**이승훈** (회원, 대성중학교)

산수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나무들은 대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인가?

산수화 속에 나무는 정형화된 것은 무엇이기에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그려지는가?

산수화에 자주 나오는 나무에 관한 성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산수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나무들은 대체 어떤 종류의 나무들인가? 산수화가 그려지기 전에도 나무 그림은 존재 했고 나무로 보이는 형태가 벽화나 도기 벽돌에 있었다. 고구려 벽화나 백제시대 산수문전에도 나오고 신라에서도 솔거가 노송도 벽화를 그렸다는 설화도 나온다. 그러나 산수화 속에 나무는 정형화된 것은 무엇이기에 오늘 날까지 변함없이 그려지는가? 산수화에 그려진 나무들은 왜 그곳에 있을까? 산수화에 자주 나오는 나무에 관한 성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중국에 산수화가 대두된 것은 진(晋)나라 이후이다. 4세기 고개지의 '여사잠도권'에 그려진 산수화가 효시로 불리어 지기는 하진만 말이다. 동물이 크게 보여 산수가 잘 보이지 않으나 처음으로 본다. 남북조 시대 화가 고개지의 뒤를 이은 종병은 그의 화산수서에서 산수화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당(唐)나라 오도자가 비로소 자신만의 필치로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사훈과 왕유를 시조로 하는 북종화와 남종화로 발전하게 된다.

수묵 산수화는 중국 산수화에 등장한 것은 당송오대를 전후하는 시기이다. 당(唐)대 이전에는 거의 인물화의 배경으로 그려지다가 새로운 인식으로 나타났고 노장(老莊) 사상과 위진현학(魏晉玄學), 그리고 산림문학을 배경으로 자연주의가 형성 되면서 독립된 양식으로 그려졌다. 당대말(唐代末) 송대전(宋代前) 시기에 걸쳐 산수화는 계속 발전하였고 원대에는 사대가 모두가 산수화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청대까지 그 전성기의 길을 걸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의 불교시대가 퇴보하는 시기에 시작하여 조선조에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강한 채색의 청록산수와 금벽산수로부터 수묵이 주류를 이루는 대자연의 모습을 수묵담채로 나타낸 그림으로 이어졌다.

오래된 나무에 대한 그림은 중국 쓰촨성 박물관에 있는 동한시대 화상전 탁본인 '익사 수확도(?射收穫圖)'가 있다. 두 그림 중 윗부분의 익사도에는 버드나무 아래에서 두 명의 사냥꾼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이 있다. 연못에는 물고기와 오리가 노닐고 하늘엔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오리가 있다. 사람의 동세 표현에 못 미치는 나무의 형세는 버드나무 같지 않다. 그저 물가에 있으니 버드나무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면히 시간은 흘러 명말청초에 개자원화전이 나타났다.



개자원화전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이 책의 영향은 컸다. 이 책의 수보(樹譜)에는 나무끼리 배치하는 법, 잎을 붙이는 법, 잎사귀 모양을 따른 점의 종류, 착색용 잎사귀 종류, 범관이나 곽희, 왕유 등의 이름 있는 화가의 나무 그리는 법 등이 나와 있다. 점으로 그리는 잎사귀와 착색하기 좋게 두 선으로 그리는 잎사귀가 있다. 특히 점법(點法)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 나무코드를 알 수 있다.

송엽점은 소나무 잎, 수등점은 수직으로 된 등나무, 춘엽점은 참죽나무의 잎처럼 그려진다. 오동점은 오동나무 잎, 삼엽점은 삼나무 잎을 그린 것이다. 나머지 점에 대한 점법은 잡목을 그리는데 활용하는 점법들이다. 개자점은 개(个)처럼 생긴 점, 호초점(胡椒點)은 산초나무 열매 같은 점, 매화점은 매화꽃 다섯 잎을 모아 찍는 점, 소혼점은 가득 찍은 작은 점, 서족점은 쥐의 발자국 같은 점, 국화점은 국화꽃 같은 점, 백엽점은 측백나무 잎같은 점, 수조점은 물가의 마름풀 같은 점, 대혼점은 가득하게 큰 점,



산수화에 나무를 그리면서 왜 이고에 그 나무가 그려지는지 알고 그리면 더욱 즐거울 것 같다. 나무는 우리 집주변에 있으면서 삶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의 소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강세황 『산수. 죽. 난 병풍』



찬삼점은 세 개를 모은 점, 조사점은 자라난 마름처럼 생긴 점, 첨두점은 위쪽이 뾰족한 점, 평두점은 평평한 선을 모은 점이다. 수두점은 선의 양끝이 아래로 향한 점이요, 앙두점은 양끝이 위로 향한 점이요, 찬삼취오점은 점은 3개나 다섯을 모은 점이다. 편필점은 평평한 몽땅 붓으로 그은 점, 일자 점은 일자형의 점, 편필점은 붓을 기울이고 그은 점이다. 그리고 쌍선으로 된 점들이 있다. 채색하기에 적당한 점들이다. 단풍잎과 같이 채색하거나 오동잎처럼 잎이 넓은 점들이다. 멀리 있는 나무들의 잎은 가늘고 작은 점을 사용했다. 관동이나 미우인 등이 사용했다고 전한다. 버들을 그리는 법과 잎이 없는 버들을 그리는 법을 전한다. 작은 대나무를 그리는 법과 갈대를 그리는 법을 전한다.

형호와 관동은 북쪽의 경치를 표현하였는데 산세가 험하고 바위산과 폭포, 침엽수가 울창하도록 그렸으며 주객의 형식을 취하여 표현했다. 동원과 거연은 강남의 경치를 그렸는데 안개로 보이는 낮은 산을 그려서 넓은 수면과 활엽수가 나타난다. 따라서 화북산수와 강남산수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다.

이는 자연의 습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의 금강산을 나타낼 때는 바위가 많고 계곡은 험준한데 소나무를 울창하게 그렸다. 반면에 강변이나 나루를 나타낼 때는 물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 산수풍경에 자주 나오는 나무 중에서 참나무와 소나무이다. 태백산맥에서부터 우리 뒷동산까지 흔하게 볼 수 있다. 야산에는 상수리나무가 있고, 산중턱에는 신갈나무가 있으며, 강가나 낮은 산자락에는 떡갈나무가 있다. 자갈이나 옹색한 땅에는 굴참나무가 자란다. 우리나라는 계곡이나 농촌 풍경 중 토양이 좋은 곳에서는 참나무와 단풍나무 등 활엽수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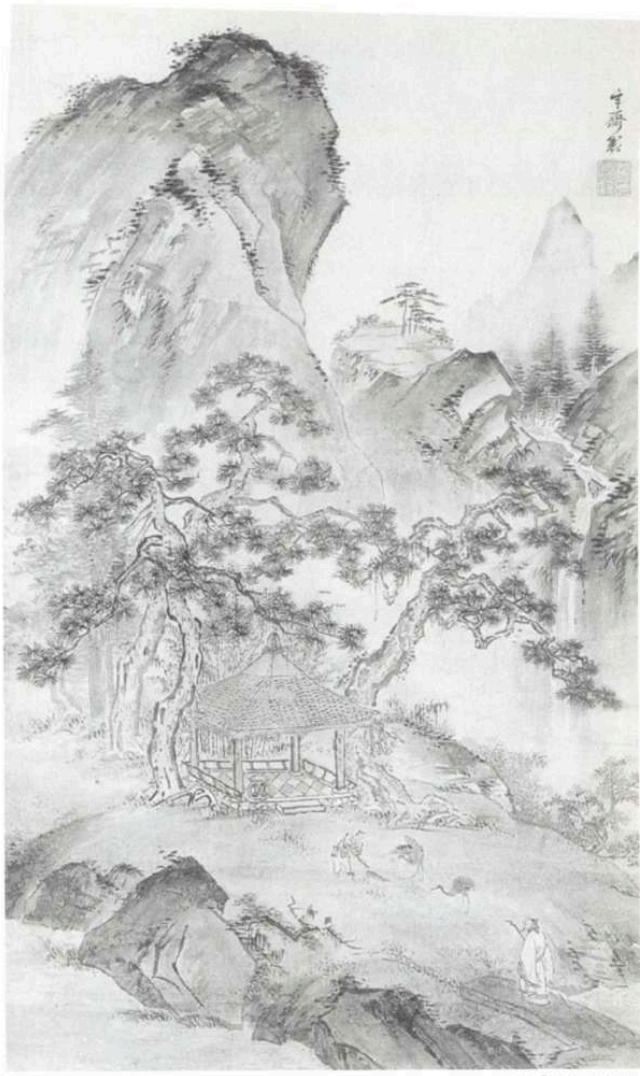
척박한 산과 절벽에는 소나무가 자란다. 조선시대부터는 소나무를 유교 정신에 부합하여 많이 즐겼으며

참나무는 생활에 유용하여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소나무는 성장이 늦지만 모래땅이나 지력이 좋지 못한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란다. 따라서 산지와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화가들의 그림에 소나무가 우거진 곳은 척박하고 기름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이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좋아 했는지 모른다. 식물은 산과 계곡으로 구분되어 자란다. 식물이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로 나뉘면서 그 자라는 곳도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소나무나 향나무, 아카시아, 소철은 양지 식물이다. 들판에 홀로 서있는 나무는 거의 양지 식물이다. 음지 식물은 일반적으로 잎이 넓고 얇으며, 그 수가 적다. 고사리류, 담쟁이넝쿨, 맥문동 등이다. 반음지 식물은 산철쭉, 진달래, 조릿대, 봉선화 등이다.

섬이나 해안, 심산계곡, 하천변은 항상 공중습도가 높고 토양수분량이 비교적 높다. 그 반면 산의 정상과 산등성이는 직사광선량이 많고 공중습도가 적은 편이다. 이곳에 자라는 특성의 나무를 그림에 적당한 지 보아야한다.

수국은 산성과 알카리의 성분에 의하여 꽃의 색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토양의 pH척도에 따라 나무가 자라는 종류도 다르다. 강산성(4~5.5pH)에는 진달래, 철쭉, 자귀나무, 싸리나무, 치자나무, 오엽송(섭잣나무), 소나무(육송, 적송)등이 있다. 약산성(5.5~6pH)에는 배롱나무, 편백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 동백, 개나리, 쥐똥나무, 등나무 등이 있다. 미산성(6~6.5pH)에는 때죽나무, 영춘화, 마삭줄, 벚나무, 구기자, 으름나무, 멍나무, 매화, 석류, 은행나무 등이 있다. 중성(6.5~7pH)에는 모과, 해당, 애기사과, 감마누, 산사나무, 돌배나무, 해송(곰솔, 흑송), 섬백리향, 진백, 두송, 주목, 귤나무 등이 있다. 알칼리성(7~7.5pH)에는 산단풍, 소사나무, 서나무, 당단풍, 느릅나무, 머루나무, 무화과 등이 있다. (들풀에서 줍는 과학, 김준민, 지성사)

우리나라의 산지와 들판, 바닷가, 섬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종은 무엇일까? 소나무나 버드나무를 제외하고는 조선시대 그림을 보아서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



심사정 『산수도(山水圖)』



김홍도 『오류귀장(五柳歸莊)』



과에 속하고 학명이 피루스인데 배나무를 뜻하는 것과 같다. 원산지는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으로 종명이 우수리엔시스이다.

(들풀에서 줍는 과학, 김준민, 지성사)

불교 경전을 새겼던 팔만대장경을 보면 약간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팔만대장경은 팔만 개의 대장경판이 8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보존 되어 보여주니까.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 500여 명의 제자들이 석가의 말씀을 정리하여 쓴 경(經), 석가가 제정한 생활규범인 율(律), 경과 율의 해석과 연구서인 논(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장, 율장, 논장 이것을 삼장(三藏)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는 중경, 일체경, 대장경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방대하여 필사본을 하면서 오류가 많아 목판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때 쓰인 나무는 지금까지는 자작나무나 거제수나무, 후박나무라고 하였으나 첨단기술로 목재를 분석한 결과 산벚나무가 주종이고 돌배나무 등이 사용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은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야산에서 흔히 자라고 돌배나무도 내륙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판각하기 쉽고 오래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풍경에 어떤 나무가 그려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산벚나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왕벚나무, 벚나무, 올벚나무 등이 있고 왕벚나무 자생지는 일본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것이다. 돌배나무는 기원전 3,000년경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경남 의창 다호리 유적지에서도 발견된다. 벚나무처럼 장미

그럼 구체적으로 소나무에 대한 그림과 그 소나무 생태를 알아보기로 하자. 소나무 그림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먼저 알아본다. 김정희의 세한도는 너무도 알려져 있고, 능호관 이인상의 설송도가 있으며, 정선의 관폭도 등은 소나무가 항상 있다.

소나무는 음식에 사용하기도 한다. 송홧가루는 다식으로, 솔잎으로 선식(仙食), 송기(소나무 어린가지의 속껍질)를 멥쌀가루에 버무려 남든 송기떡, 솔방울의 송실주 등으로 만들어 먹었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솔잎이 들어가거나 땔감은 물론 도자기를 굽는 등요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건축재로 많이 쓰이어 궁궐이나 서원, 사대부 집의 골격은 이 나무가 쓰인다.

소나무가 송(松)자가 된 것은 진시황과 관계가 있다. 만리장성을 진시황이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는데 소나무 덕에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준 나무라하여 목공(木公)이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천자 다음 자리인 제후에 해당하는 이름이 생겼다. 우리

추사 김정희 「세한도」



나라에서도 조선조 정조는 소나무를 유난히 좋아하여 경기도 수원의 노송지대가 바로 심고 가꾼 곳이다. 그리고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 못하게 나무에 엽전을 매달아 나무를 베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이 엽전으로 그것을 대신하라는 것이었다. 송충이로 소나무가 죽어갈 때는 입에 넣어 씹었더니 수만 마리 까치와 까마귀가 모여서 송충이를 잡아먹어 소나무를 살렸다는 전설도 있다.



겸재 정선 『송암복호(松岩伏虎)』

소나무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줄기가 붉으면 적송(赤松), 형태가 여인처럼 아름다워 여송(女松), 육지에서 자라면 육송(陸松), 금강산에서 자라면 금강송(金剛松)이다. 이 금강송은 금강산과 삼척, 울진 등지에서 자라나서 경상도 춘양역에서 모인다고 하여 '춘양목'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정부는 속이 누런 창자라는 황장(黃腸)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황장봉산으로 삼았다. 이런 표석이 울진 소광리, 문경 동로면 명전리, 치악산 구룡사 입구, 팔공산 동화사 근처,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영월군 수주면 두산2리 등에 남아 있어서 알 수 있다. 봉산이라는 것은 소나무 보호 정책인 송금(松禁)이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목임에 틀림없다. 2005년 산림통계로는 산림면적(996만 헥타르)이 국토면적의 65%이고 그 중에서 침엽수림이 271만 헥타르이고 전체 산림면적의 41%가 소나무 숲이라고 한다.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고려시대부터 소나무는 선비들로부터 지조를 상징하는 나무이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소나무는 상목(상층목)이고 다른 나무는 모두 잡목으로 보았을까.

심사정 『하경산수도』



잣나무도 그려진다. 김정희 세한도에도 나오지만 심사정 하경산수도와 같이 다른 잡목들과 함께 잎사귀 점이 진하게 옆으로 그려진 점들은 잣나무라고 볼 수 있다. 잣나무는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고 있어, 외국에서는 잣나무를 영어로 'Korean pine'이라고 부른다.



겸제 정선 『망화환도(輞花喚渡)』

양지바른 곳에서도 잘 자라나 약간 그늘진 곳에서 더 잘 자란다. 생장속도는 빠르며 뿌리가 약간 깊게 내리므로 옮겨 심을 때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원에 많이 심었고 그림 속에 잘 보이는 나무다. 잎이 5장씩 달려 오엽송(五葉松)이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는 바다를 건너온 소나무라는 뜻으로 해송(海松), 신라가 잣을 중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신라송(新羅松)이라고도 불린다. 재질은 연하고 결이 곧게 뻗어 가공하기 쉽다. 가구재와 도구나 선박을 만드는 데 쓴다. 씨를 잣 또는 송자(松子)라고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등이 많아 생으로 먹거나 과자나 술을 빚기도 한다. 해송자(海松子)라고 하는 [illegible]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거나 신경통이나 현기증의 치[illegible]인다. 다 크면 키는 30m에 이르며 줄기의 지름은 [illegible] 달한다. 수피(樹皮)는 암갈색이며 갈라진다. (들[illegible] 과학, 김준민,

지성사) 세한도의 잣나무가 측백일 수도 있다. 강판권님은 그의 저서 '나무세기'에서 송백은 소나무와 측백나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송백 중 백은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을 뜻한다. 논어 자한 편에 "자왈 세한연후에 지송백지조후야니라."에서 송백은 소나무와 잣나무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했을 뿐이란다. 소나무도 자생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지 중국은 아니라는 점도 있다. 일본은 잎이 납작한 것은 편백으로 부르고, 일본 원산인 화백, 서양측백, 우리나라 특산으로 누워 있는 모습의 눈측백이 있다. 잎 모양은 측백나무는 W형, 하백은 X형, 편백은 Y형으로 구분한다.

버드나무는 강변에 많이 그려지고 집 앞에도 그려진다. 10세기 경 북송의 화가 범관이 그린 '계산행려도'는 웅장하고 장엄하다.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겸재 정선 『장안연우(長安煙雨)』

이 그림은 산꼭대기는 빽빽한 산림으로 채우고 화면 아랫부분은 나무와 건물 등을 배치하였다. 활엽수와 상록수가 잘 배치되어 그려졌다. 버드나무 대신 개울가에 그려질 다른 나무들이 세워졌다.

베이징 고궁박물원에 있는 북송시대 그림인 장택단의 '청명상하도'는 권으로 된 그림이다. 길이가 5.28m요, 높이가 2.48m의 옆으로 길며 큰 그림이다. 청명절 변강의 경치를 길게 늘여서 그린 것으로 세부분으로 나누어 감상 하여야 한다. 첫 부분은 변경 교외의 농촌을 그렸고, 안개 속에 농가가 보이며 당나귀가 숯을 등에 지고 걸어오고, 우거진 버드나무가 보이고 길이 보이며 가마 한 채가 있다. 가마 뒤로 많은 사람이 보이고 짐을 지고 말을 타고 성안으로 들어간다.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집들도 많아진다. 강위에도 배가 많아지고 배위에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버드나무가 멋스럽고 계절과 잘 어울리기도 하다.

조선이 낳은 진경산수화의 맹주 겸재 정선의 그림은 나무의 종류가 단조롭다. 소나무와 버드나무가 많다. 특히 한강을 주변으로 하는 진경을 담은 것들은 버드나무가 많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장안연우는 소나무에 온통 버드나무 일색이다. 특히 봄을 나타내기에 좋은 나무가 버드나무였던 것이다. 송림은 발묵과 수묵훈염법으로 기타는 태점으로, 버드나무는 피마준 같이 그렸다. 필운상화 그림도 그렇다. 인왕산 동쪽 산자락 중 맨 남쪽에서 가장 봉우리가 필운대이다. 이 필운대 봉우리에 선비들이 모여 들었다 그 아래 마을을 그렸는데 집집마다 붉고 희 꽃이 피어있다. 복숭아, 살구, 오얏, 배, 능금 등 그 사이에 버드나무가 그려져 있다. 분홍빛과 연초록이 잘 어울려 있어 봄을

잘 대변해 준다.

양화환도는 양화진 나루를 그린 것이다. 이 동네는 버들 꽃 피는 마을로, 봄이면 한강가에서 유명한 버드나무 숲으로 장관을 이룬다. 지금은 양화대교가 생겨 그 때의 시상과 그림의 이미지를 잘 얻을 수 없지만 말이다.

이수정은 강서구 염창동 도담산 상봉에 있던 정자인데, 강변 나루 입구엔 버드나무가 사람을 맞이할 태세이고 이수정 주변주에 전나무와 느티나무가 서 있다. 겸재는 자주 버드나무를 고수류법(高垂柳法:가지를 높게 드리운 버드나무 그리는 법)으로 그렸다.

양청현아 그림에는 현아 건물 중심으로 외삼문 앞에는 버드나무를 그렸고, 종해원 왼쪽 언덕에는 거목으로 자란 느티나무와 그 뒤에 갈참나무를 그렸다.

영조 18년(1742)경에 귀래정을 그렸는데 배 한 척이 돌아와서 귀래정에 막 도착 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옆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고 산 쪽으로는 소나무가 도열해 있다. 집 주변에는 잡목이 서있고 앞 쪽으로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다. 버드나무는 오류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류는 도연명이 집 앞에 다섯 그루 버드나무를 심어서 생긴 말이고 오류선생이라고도 한다.

버드나무 많기로는 동작진이다. 지금의 동작대교쯤 될 것이다. 원경에는 관악산 우면산이 있고 중경에는 국립묘지 자리가 있다. 앞쪽으로 배들이 모여서 동작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근경에는 나룻배도 있고 당나귀도 보인다. 반포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이수교일대는 저지대라서 버들 숲이 조성 되었다. 흑석동 쪽 강변 마을도 버드나무 숲이다. (겸재의 한양진경 최완수 동아일보사)

살구나무는 봄 풍경에 자주 나온다. 특히 행화촌(杏花村)은 주막을 의미하는데 마을 어귀나 먼 길가는 길목에 보이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그런 곳에 위치한다고 본다. 살구꽃은 행화(杏花)이다. 이 '행' 자는 은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이면서 향교근처에 은행나무가 많이 자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행화 근처엔 제비가 그려지고 잎이 나기 전에 꽃이 그려져야 하는데 잎과 꽃이 함께 그려진다. 살구나무에는 신기한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산길을 갈 때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와 목탁을 들고 다니면 맹수가 덤비지 않는다고 믿었다. 성경에서도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가 등장한다.

복숭아열매가 탐스러운 복사나무, 연평균 기온이 섭씨 11~15도 정도인 곳에서 자란다. 겨울엔 영하 15~20도 추위도 잘 견딘다. 우리나라의 복사나무는 고온다습한 곳, 배수가 좋고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도록 토층이 깊고 기름진 모래참흙이나 자갈참흙에서 잘 자란다. 무릉도원에 나오는 복사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온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작은 나라와 같아서 도연명이 이상향을 꿈꾼 나라이다.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가능케 하는 '장수'와 '힘'을 상징하는 열매로 통한다. 동방삭이 삼천갑자로 불리는 것은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향, 다산, 괴력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오동나무는 마을에 자주 그려진다. 조선시대 정약용의 산수도 한 점, 동아대박물관 소장인데 담백하고 간결한 필치로 산 중턱에 떡갈나무와 오동나무, 한 그루는 고목을 그렸다. 이 세 나무가 어울려 아래를 지나는 물을 바라보고 하늘 한쪽에 시를 썼다. 잎이 없는 이 나무 한 그루가 그를 대변하는 듯하다. 시구도 "부드러운 떡갈나무와 기름진 오동잎은 활짝 피었지만, 이 한 그루의 고목은 홀로 쓸쓸하게 서 있네." 고목은 유배시절의 심정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그림 백가지 박영대, 현암사)

강세황의 벽오청서도는 개자원화전의 심주 그림과 비슷하게 그렸다. 이 그림에 두 그루의 벽오동을 그렸다. 키가 15m에 달하는 한국 특산 식물이다. 꽃은 5월경에 자주색으로 핀다. 옛말에 '봉황새는 대나무 열매만 먹고 집은

오동나무에만 짓는다.'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기던 나무였다. 한국에는 오동나무와 참오동 2종(種)이 있는데, 오동나무는 참오동과는 달리 잎 뒷면에 갈색 털을 가지고 꽃잎에 자줏빛의 선(腺)이 없다.

특히 벽오동은 꿈의 나무이다. 껍질이 푸르기 때문에 벽오동이다. 벽오동은 오동나무와 껍질도 다르지만 열매도 다르다. 벽오동의 열매는 마치 작은 배처럼 생겼다. 열매가 익으면 콩알만 한 씨앗이 배에 붙어 돌면서 내려온다. 중국 그림에서는 엄격하게 오동과 벽오동을 구분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우리나라의 벽오동은 중국이 원산지로 영어권에서는 '중국의 파라솔 나무'라고 하였다. 이는 오동나무 잎이 넓기 때문이다. 벽오동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잘 살아간다고 한다. 그리고 속을 비워야 한다. 벽오동이 '동'자가 비어 있는 대롱 즉 통(筒)을 뜻한다. 나무의 삶이 비움과 채움이 있기에 이상과 꿈을 이 나무에서 찾았는지 모른다. 비워 둔다면 봉황이 빈 곳으로 날아드는 것일 수 있다. 거문고와 비파, 가야금 등 악기를 만들었으며, 책장이나 경대, 장롱 등의 가구재로 쓰였다. 나막신을 오동나무로 만들면 가볍고 발이 편하고 땀이 차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술관에 사는 나무들, 강판권, 효형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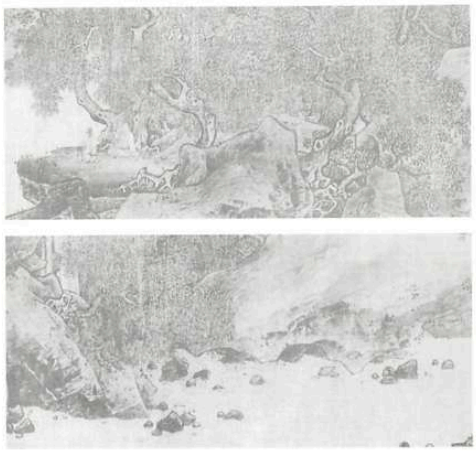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 『산수도(山水圖)』



겸재 정선 『산수도(山水圖)』

단풍나무는 가을 풍경을 그리는데 놓치지 않고 나오는 나무이다. 송대 화가인 이당은 이사훈과 범관을 배우고 산천의 한 면을 근접에서 그렸다. 베이징 고궁박물원에 있는 '채미도'는 권으로 그렸는데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뜯어 허기를 채우고 지쳐서 쉬고 있는 장면이다. 채미도의 두 사람은 백이와 숙제 형제이다. 호미와 광주리가 있는 옆으로 소나무가 있으며 단풍나무도 그려졌다. 이당의 또 다른 그림은 텐진시예술박물관에 있는데 '호량추수도'이다. 가을날 호수의 다리에서라는 그림이다. 호(濠)는 호수라는 말인데 안후이의 성 펑양에 있고 양(梁)은 다리라는 말이다.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매의 발톱 같은 나무뿌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아래로 늘어진 가지의 주홍색 잎사귀는 가을을 말해준다. 단풍과 물살, 다리와 폭포는 모두 고사들의 고담준론을 부각시키는 소재들이다. (시는 붉고 그림은 푸르네 황위평 저 서은숙 옮김 학고재)

이당 『호량추수도』



계절은 단풍이 변화를 알려주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단풍이 10월 말에서 11월초에 날씨가 쌀쌀하여 지면서 강원도 설악산에서

부터 전북 내장산 등으로 남하한다. 단풍이 갖가지 색을 내는 것은 잎 속에 들어 있는 색소가 나무들 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온이 내려가면 겨우살이를 위하여 가지에 매달리는 잎자루 부분에 '떨켜'라는 특수한 세포층을 만든다. 이 것 때문에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나 아미노산이 줄기로 이동을 못하는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색소로 변한다. (들풀에서 줍는 과학, 김준민, 지성사)

참나무의 갈색은 타닌 성분에 있다. 붉은 잎은 원래 녹색 색소인 클로로필(엽록소)이 분해되면서 생겨나는 안토시안 이라는 색소 때문에 변한다. 노란 잎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이다. 이 색소는 봄철에 클로로필이 생성 될 때 함께 만들어져서 잎 속에 있다가 그 양이 적어서 평상시에는 제 색을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가을에 클로로필이 분해되면서 바야흐로 잎을 노랗게 변하게 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질수록 '떨켜'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온도차가 커야 예쁜 단풍을 만나기 쉽다. 산수화에서 가을 풍경은 이러한 변화를 잘 알려준다고 본다. 설악산, 오대산 월정사에서 상원사 가는 길, 치악산, 변산반도의 내소사부근, 지리산 피아골, 정읍 내장산, 조계산 선암사 등이 단풍으로 유명하다.

단풍나무는 학명이 아르케이다. '강하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당단풍이나 고로쇠나무, 캐나다단풍나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뒷판과 비올라 액션부분, 가마나 배의 키 같은 곳에 옛날에는 쓰였다고 한다. 지금은 체육관과 볼링장 바닥, 스키, 테니스 라켓, 볼링핀에 쓰인다. 단풍나무를 속어로는 '메이플'이라하는데 이는 '볼링핀'이라는 뜻도 있단다. 영국에서는 영국사원의 단풍나무로 된 맥주컵은 가보로 전해진다고 한다.

대나무는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마을마다 집 주변에는 대나무 밭이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있으나 남아 있는 곳은 지금도 장관을 이룬다. 이런 곳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기도 한다. 문인화 중에서 사군자나 삼우도에 꼭 나오는 것이긴 하나 산수화에서 자주 나온다.

대나무는 전 세계 47 속 1,250여 종이 있다. 한국은 4속 14종이 있다. 왕대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남부에 분포한다. 대나무는 땅속줄기가 갈라져 번식하는데 옆으로 성장하는 땅 속 줄기가 얼면 이듬해에 새순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열대부터 온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왕대와 솜대의 북방한계선이 동해안에서는 강원도 고성이고 서해안 쪽에서는 당진, 천안, 옥천, 김천, 대구, 영천, 강릉으로 이어지는 선이다. 대나무는 기온뿐 아니라 초속 10미터 바람이 1년 100일 이상 부는 곳에서는 좋은 대를 생산하기 어렵다. 강수량도 1,500~2,000 밀리미터로 비교적 토양습도가 충분히 유지되어야 한다. 전남 담양이 왕대 숲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 쓰촨성 구이저우, 윈난 등의 산지 및 하곡, 사면에 거주하는 이족은 자신의 조상이 대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단다. 대나무의 죽(竹)은 중국 남방지역 고음으로 덱(tek)인데 끝소리 'ㄱ'이 약해져 우리나라에서는 '대'로 변했다. 대나무는 탈 때 나는 소리는 폭발음이 난다. 폭죽(爆竹)도 여기서 발생 했다고 본다. 서양에서도 대나무를 뱀부(bamboo)로 표기한다.

강세황 「난죽도(蘭竹圖)」



느티나무는 마을 어귀마다 자리한 나무이다. 전북 장수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공원이 나오는데 이곳은 느티나무 군락을 이룬다. 이곳은 해가 잘 들고 바람이 맑다. 해가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양수이다. 사질 토양의 적윤지를 좋아하여 땅에 물기가 약간 많은 곳에서 자라고 생장속도는 빠르지만 가뭄이나 바닷바람에는 약한 성질이다. 뿌리 부분이 깊지 않아서 바람에 약하다. 뿌리가 땅 위에 노출하여 강하게 보이기도 한다.

느티나무의 결은 조금 거칠지만 재질이 질기고 단단하여 뒤틀리지 않고 무거우며 황갈색이고 무늬와 광택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잘 썩지 않으며 물에 잘 견디어 임금의 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말린 잎은 계유(鷄油)라 하여 약용으로 쓴다. 목재는 무늬단판, 마루판, 건축과 기구, 선박, 공예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한다. 화분에 분재용 식물로 키우며,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고루 퍼진 가지는 조화된 질서를, 단정한 잎들은 예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로 널리 심어온 나무 중 하나이다. 또한 은행나무와 함께 오래 사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황산가스와 대기오염에 약하며 벚나무처럼 가지치기(剪定)를 싫어하는 편이다. 종자와 꺾꽂이로 증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종자로 많이 한다.

느티나무는 옛 문헌에 따르면 괴(槐) · 괴목(槐木)이라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관리가 임금을 알현할 때 쓰는 홀(笏)은 괴목을 쓴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각지에서 정자나무로 많이 심었는데,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하면서 농사일을 의논하고 나랏일을 걱정해 왔으니 민족의 보호수이자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이다.

느릅나무는 길가에 많이 볼 수 있다. 인터넷 글 신현철님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로 꽃은 4월에 연한 노란색으로 핀다. 열매는 4~5월에 녹색에서 갈백색으로 익으며, 멀리서 보면 나무에 동전들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원이나 정원에 널리 심고 가로수나 분재용으로도 쓰인다. 나무껍질은 유피(楡皮)라고 하는 한약재로 쓰이는데, 봄가을에 나무껍질을 떼어내어 치습(治濕)에 쓰거나 이뇨제 · 완화제 등으로 쓴다. 변재(邊材)는 백색이나 심재(心材)는 암홍색으로 질이 굳고 무거우며 탄력성이 좋고 틈이 벌어지지 않아 건축재, 기구재, 선박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꿈에 느릅나무 잎을 보면 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한다." 요즘엔 냉면도 느릅나무 냉면도 있다. 항암에도 좋다고 하니 별미일 것 같다.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는 소나무, 대나무, 수양버들, 잣나무 또는 전나무, 매화와 느티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살구, 봉숭아 나무 등이다. 수양버들은 이별과 비애를 상징하나 산수화에서는 소나무와 전나무 사이 마을 집들과 어울려 구도를 채우고 있고, 화가의 고매한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집 주변 풍경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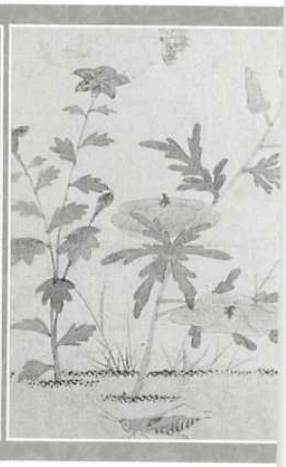
마을이나 집주변은 바람이나 겨울철 추위와 재난을 막아서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고 식용으로 쓰이며 아름답게 풍치림으로 많이 식재 되었다. 왜적을 막기 위한 위장술로 나무가 심어 진 곳도 있으며 마을의 공동 삶터로 쓰여서 정자가 있고 빨래터가 있으며 기도처가 되기도 하였다. 버드나무가 집 앞이나 마을 어귀에 있으면 그곳에 말을 매어 쉬게 하기도 한 곳이었다. 산수화, 요즘 들어 풍경을 서양식 화면으로 표현 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나무들이 그려지게 되었다. 표현법도 다양하여 지고 풍성한 그림을 보게 되는데, 좀 더 나무에게 애정을 갖고 표현한다면 더욱 좋은 그림으로 오래 남아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작은 글이지만 산수화에 나무를 그리면서 왜 이곳에 그 나무가 그려지는지 알고 그리면 더욱 즐거울 것 같다. 나무는 우리 집주변에 있으면서 삶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의 소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무를 보지 않고도 진경처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나무 이외에도 뽕나무, 은행나무, 참죽나무, 소사나무, 향나무, 목련나무 등 많은 나무들 소개되어야 하나 다음으로 미루겠다. ▣

(이하 지면관계상 출처생략)

# 한국 초충도의 회화사적 고찰과 현대적 모색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 ● 초충도의 개념

초충(草蟲)이란 용어가 미술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1006년 북송시대(北宋時代) 활동했던 황휴복(黃休復)의 「익주명화록(益州名畵錄)」에서 이다. 그 이전에는 충금(蟲禽 : 곤충과 새), 승접(蠅蝶 : 벌과 나비), 봉선(蜂蟬 : 벌과 매미)과 같이 곤충 하나하나를 이름 하였으며, 또는 화조(花鳥)라는 화목(畵目)에 여러 가지 곤충, 풀, 꽃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충도는 일반적으로 일년초나 다년생의 작은 풀과 꽃 그리고 그 주위에서 친화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풀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그것이 가지는 생명력을 이상(理想)으로 삼고 정적인 의미의 풀과 동적인 의미의 곤충을 회화적으로 조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파충류를 곁들이기도 하고 나뭇가지나 땅위에 새들도 함께 그려 넣어 넓게는 화조화의 범주에 넣기도 하지만, 새보다는 곤충이 주된 소재이기에 초충도(草蟲圖)또는 화훼초충도(花卉草蟲圖)라 부른다.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충도의 작은 소재들은 사생(寫生)에 의해 화폭에 옮겨지는 일이 많았고, 형태보다는 이들 소재가 주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그려졌다. 초충도는 화본(畵本)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만나며 접할 수 있는 눈에 익고 친숙한 소재의 식물과 곤충들이기에 쉽게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초충도는 산수화나 사군자에 비해 훨씬 더 장식적이고 실용적인 그림으로, 지식층인 문인화가 보다는 직업화가의 전유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문인화가들이 먼저 즐겨 그려 격조 있는 시적 분위기의 서정성 짙은 그림 세계를 이룩하였음은 현존하는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 ● 한국 초충도의 형성과정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농경문청동의기(農耕文靑銅儀器)의 앞면에 새겨진 나무위의 새를 통해 이미 화조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鳥), 화목(花木), 충(蟲)등이 문양의 소재로 등장했으며, 삼국시대에는 도자기의 문양과 실용적인 도형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문양 장식 미술의 일부분 일뿐 감상용 회화로서의 본격적인 발전은 고려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충도는 중국 회화와 교섭이 폭넓게 이루어지던 고려 시대부터 회화양식으로 성립되면서 활발하게 전개된 듯하다. 특히 고려 문종(文宗, 1047~1182)과 북송(北宋)의 신종(神宗, 1067~1087)연간, 북송의 휘종(徽宗, 1100~1125)연간에 회화교류가 활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초충도는 고려시대 때부터 그려졌으리라 추측되어지나 그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진작이 없어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도자기나 자수에서 초충도를 발견 할 수 있기에 일반 회화양식에서도 초충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청화백자초충문전접시(도판 01)

도판 01에서 보여 지듯 조선시대 초기 도자기(조선, 15세기, 높이 1.9cm, 폭16cm, 개인소장)와, 도판 02에서 초충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도자기들은 유교를 정신적 지주로 한 조선시대 도자기로 새하얀 백자이다. 티 없이 맑고 소박한 이 도자기들은 겸허하며 청빈하고 너그러운 우리 민족의 심성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단지 표면을 치장한 문양의 기능을 넘어 한 폭의 어엿한 작품이 되었다.



청화백자매조죽문호(도판 02)

일찍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의 민족감정은 자연스럽게 초충을 그 소재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곤충이나 동물의 순수하고 천진한 모습에서 삶의 지혜까지도 터득하고 있다. 방대한 산수의 표현이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 못지않게 초충도 역시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소 자연을 다루는 그림의 소재로, 가볍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변성과 정답고 따뜻한 친근성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그림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화면에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초충도는 회화사에 있어서 고유하고 독특한 한 장을 차지하는 화목이


정중 이암의
〈화조구자도(花鳥狗子圖)〉(도판 03)


신사임당의 초충도(도판 04)


겸재정선 〈초전용사〉(도판 05)


심사정 〈과석초충도〉(도판 06)

되었다. 또한 초충도는 한 결 같이 단순한 주제, 간결한 구도, 섬세하고 여성적인 표현, 산뜻하면서도 한국적 품위를 지닌 색채감각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초충도는 섬세함을 요하는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사실적 묘사기법에 뛰어난 화원화가들이 많이 그렸다. 그러나 장식성을 뛰어넘어 문기 넘치는 문인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초충도를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초충도 화가로는 조선초기의 신사임당, 조선 중.후기의 옥산 이우,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단원 김홍도, 조선말기의 장승업, 남계우 등을 들 수 있으며 근 · 현대 작가들로 이어진다.

### ● 우리나라 초충도의 부흥기인 조선시대의 초충도와 작가

조선초기에는 화조화를 비롯한 화훼나 초충류의 그림은 산수나 사군자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소극적으로 다루어 졌다. 그 이유는 선비 취향의 수묵화가 성행하였고, 경국대전의 예전(禮典), 취재(取才)조에 씌여진 도화서의 화원시취(畵員試取)에서는 죽(竹)이 일등, 산수(山水)가 이등, 인물(人物)과 영모(影毛)가 삼등, 화초(花草)가 사등으로 정해진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화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가들은 사대부 중심의 문인화가였으며, 그들의 미의식과 가치관이 지배적인 배경에서 수묵화나 사군자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배경에서 초충도만을 전문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조선 초기에도 초충을 소재로 그린 작가들을 볼 수 있는데, 이암(1499~?)과 신사임당(1504~1551)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관념적인 것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려 했던 우리 민족의 풍토적 미의식을 반영하며 독특한 특성을 갖는 양식을 전개시키며 한국회화가 자생적으로 독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중.후기 초충도에서는 조선초기의 중앙 중심구도와 함께 사선구도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선구도는 대상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함으로써 운동감을 느끼게 하고 한쪽을 비워두는 여백의 활용으로 화면에 변화감이 생겨났다. 조선 중.후기 초충도는 다양한 기법의 작품이 그려져 전성기의 토대를 이루게 되는데, 조선초기가 초충도 형성의 시기라면 이 시대는 발전과 융성의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당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김홍도는 모든 화재에 능하였으며, 화원출신으로 영모에 능했던 변상벽이 있고 수묵산수화에 새로운 경지를 펼친 정선은 세밀하고도 정교함과 관찰력이 돋보이는 생동감 넘치는 초충도를 여러작품 남겼으며 현재 심사정, 이함, 김인관 같은 문인화가들이 활동을 하였다. 그 가운데 심사정은 다양한 문인화 기법으로 초충도를 발전시킨 사대부 가문 출신의



단원 김홍도 〈황묘농접도〉(도판 07)



조희룡 〈군접도〉 (도판 08)

문인화가이다. 또한 이들 대가들의 초충도는 당대와 후대의 화풍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생활풍습과 실 생활상을 해학적으로 담아낸 풍속화는 사생을 통해 그려진 그림으로, 초충도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선 말기는 근대화 과정을 겪는 시기로 정치적으로 불안정 하고 산업 · 경제구조 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개화사상으로 인하여 신분의 격차가 완화되면서 중인 계급의 문화적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선 말기 회화의 특징 중 하나는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양화를 접하거나 배운 사람이 늘어나고 몇몇 그림에서 음영이 나타나는 등 새로운 화풍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 말기에 활동한 작가로는 조희룡, 남계우, 상고재, 조정규, 신명연, 죽향, 박기준, 서병건, 지창한, 장준량, 이교익, 장승업 등을 들수 있다. 이들 모두가 초충도 화가라고는 할 수 없으나 화훼초충도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조선 말기의 초충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고재의 초충도(도판 10)에서 느낄 수 있는 수묵화의 느낌을 살린 초충도와 장식성이 강한 나비그림이 등장한다. 조희룡의 군접도(도판 08)에서 보여 지듯 화제(畵題)가 그림의 상단에 위치하고, 그림의 중앙부분에 나비가 그림의 하단부분에 풀이나 풀꽃이 3단계를 이루는 3단계화법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남계우 〈군접도〉부분(도판 09)



상고재 〈초충도〉(도판 10)

### ● 근 · 현대 한국화단에서 초충도의 모색

한국 회화사에서 근대적 창조의식의 서장은 18세기의 자주적 국화풍(國畵風)으로 말해질 수 있다. 19세기로 오면서 실학사상과 함께 그림에서도 현실상을 담은 풍속도와 사실풍경이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화풍보다 우리의 그림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세기초 1910년 이후에는 일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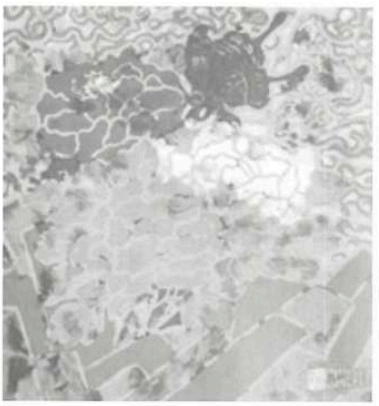
강압적인 한국의 정신문화 말살정책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화풍은 설자리를 잃게 되면서 양화의 흡수와 일본풍의 소화라는 모색을 통해 현대 회화의 화풍을 형성해 나갔다.

또한 1920년대에 이후 전통화단의 신진 세대들의 표현사고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작품의 제재(題材)와 명제(命題)에서 엿 볼 수 있으며, 작품의 소재와 표현방식에서도 신자연주의 풍경화와 현실 정경(情景)의 인물화 등 새로운 화풍의 등장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일제치하에서 현실적 문제에 알맞게 평범하고 구체적인 명제를 붙이고, 풍경화들은 새로운 구도와 현실시각의 자연묘사 및 색채표현으로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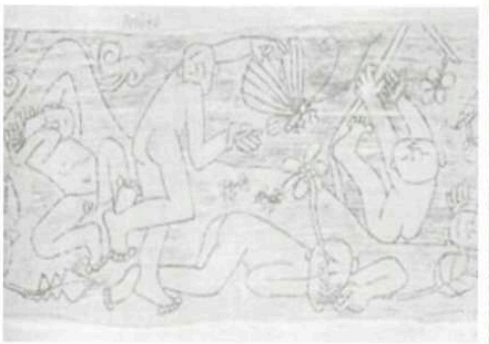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회화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전통화단은 일본적인 감성과 방법이 적극적으로 지양되는 반면 서구의 새로운 조형방법에 감화를 받은 경향이 대두되고, 전통적인 양식을 현대적 감성에 맞게 재해석하는 혁신적 경향의 추이도 현저해졌다.

6.25를 거치고 1960년 무렵 미술계는 정상적 분위기를 회복하고 있었으며, 서구의 순수 추상미학의 유입으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국제주의적 조형발상과 현대적 표현사고의 비구상(非具象)이 또 하나의 경향적 화풍으로 등장해 다채로운 미술 양식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근대의 화풍에서 초충도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였다고 보여진다.

근 ·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초충도는 조선시대와는 표현방법과 재료사용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조선시대의 초충도가 초충의 상징성을 중심으로한 소재의 사실적인 묘사위주의 그림이었다면, 근 · 현대에 나타나는 초충도의 경향은 전통적인 회화양식에 양화의 표현방식이 더해지거나, 작가 개인의 사상이나 심상이 소재의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충도의 소재 범위는 넓어져서 풀과 꽃 곤충에 국한되지 않고 화훼, 기물, 인물등 초충과 함께 작가 개개인의 특징적인 소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내고 박생광 (도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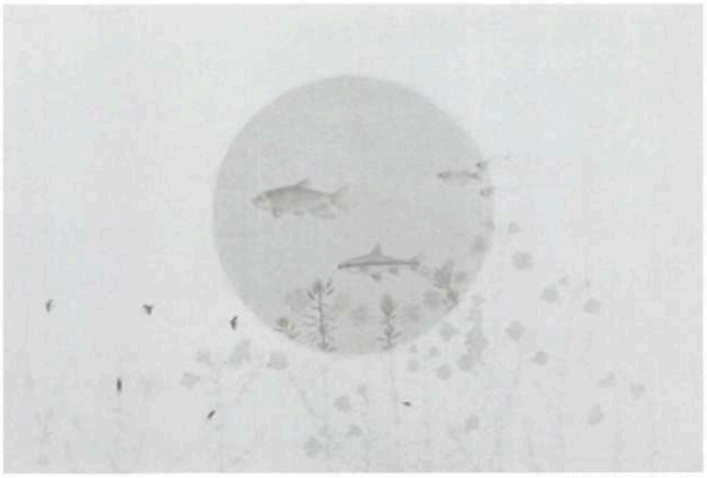
이중섭 〈봄의 어린이〉 (도판 12)



이왈종 (도판 13)



윤형선 〈꽃이 나비를 향해 날아들듯〉(도판 14)



이봉금 〈공존〉(도판 15)

근·현대로 이어지는 초충도의 변화는 내용면에서 소재의 전통적인 상징성을 떠나 개인의 심중을 담거나, 향수를 떠올리는 기억의 편린(片鱗)등 사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표현 방식에서는 민화적 기법, 사실적인 묘사, 비구상적인 표현기법등 다양해진 표현방식이 보이고 있다. 또한 재료적 측면에서도 지, 필, 묵(紙, 筆, 墨)에서 벗어나는 현상도 나타나는등 현대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대자연의 섭리와 질서가 함축적으로 집약된 초충도는 자연계의 조화를 특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보았던 우리의 자연관과 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통회화에서 초충도에 나타난 미의식은 전통회화의 오늘날 현대화 과정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초충도의 회화성과 미의식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활성화로 한국화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계승이 재조명 되어야 하겠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은 인간중심이 아닌 자연중심의 미의식이며 무분별한 개발의 남용 속에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정신일 것이다.

전통을 연구하는 것은 고전의 답습이나 모사에 있지 않고, 우리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은 그 시대 문화를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에 와서는 탈장르, 퓨전 현상이 전 세계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통과 고유문화에 대한 뿌리가 없는 탈장르와 퓨전은 가치관의 혼란과 역사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연구와 현대를 바라보는 시선의 적절한 절충은 문화적 자생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초충도의 현대적 모색은 한국의 회화사에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




# 세계미술거장전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을 보고...

겨울을 재촉하는 비로 모악산 주변이 온통 회색으로 흐리던 날, 무채색의 건물과 대조적으로 자주 빛 빨강 단풍 뒤에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가 쓰인 노랑색 플랭카드가 산 밑에 조용히 자리한 미술관의 색을 품고 있었다. 세계미술거장전답게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임시 매표소가 있었고,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끊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글 **안순금** (회원, 한국전통문화고)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열리는 전시다.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도립미술관이 기획한 대형 전시로 전라북도에 이러한 거장전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다는 것이 고마울 뿐이다. 특히 입체파의 피카소를 비롯한 현대미술의 작가들이 나오기까지 미술사의 주요 장면을 이루는 인상파의 마네, 후기 인상주의의 폴 세잔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입체파 이후의 샤갈을 비롯하여 몬드리안과 미로, 그리고 팝아트의 앤디 워홀에 이르는 세계거장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특히 피카소와 샤갈을 중심으로 입체파 이전, 피카소와 입체파, 입체파 이후 -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와 에콜드 파리, 다다와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등으로 구분하여 전시된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카소나 샤갈의 작품이 대부분 판화작품으로 전시되어 있고, 도슨트의 작품에 대한 설명이 시간에 쫓겨 자세하지 못하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도립미술관이 내건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회화작품이 아닌 판화작품이 대부분이며 기대만큼 두 화가의 작품은 많지 않았다. 색채의 마술사 샤갈의 작품을 판화로만 대하고 나오니 그림책을 보고 온 듯한 느낌이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제2전시실에 들어갔는데 간이 벽을 설치하여 공간이 좁아 오고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과 부딪치며 감상하였다. 인상주의의 마네와 피사르, 세잔, 로트렉등의 작품과 피카소와 입체파 에콜드 파리의 전시가 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었고, 제3전시실로 옮기니 100호 정도 되는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의 작품을 볼 수 있어 위안을 받았다. 제4전시실은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을 딛고 기존질서의 부정으로 고상한 예술에 변기를 전시한 혁명적인 행위를 한 마르셀 뒤샹의 판화 작품과 호안 미로의 추상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5 전시실은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엔디 워홀의 팝아트, 키네틱 아트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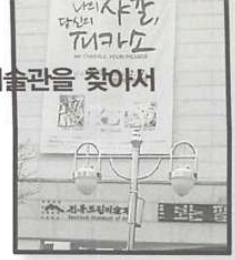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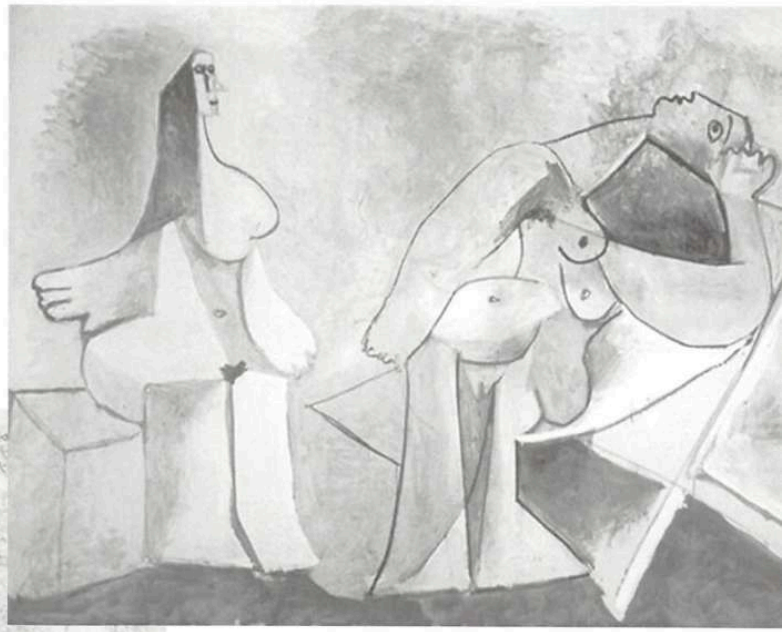
피카소의 「벌거벗고 앉은 남자」
2012-Succession Pablo Picasso-SACK (Korea)









2012-Succession Pablo Picasso-SACK (Korea)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12 Chagal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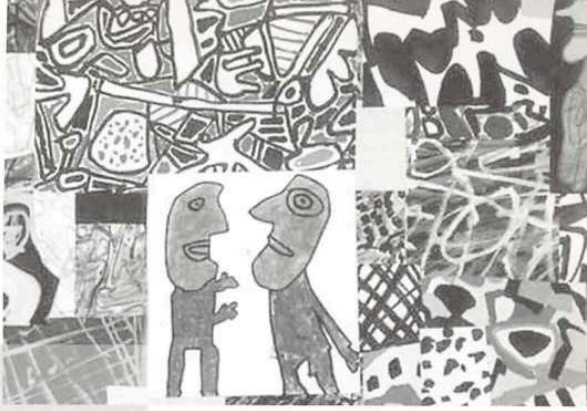
목욕하는 사람들 – 세잔

전시를 다 보고 계단을 내려오며 함께 간 딸이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맘에 든단다. 당신의 샤갈이 아니고 색을 예쁘게 쓰는 샤갈이 나의 샤갈이고 형이 분해되고 해체되어 재조립된 작품이 제대로 이해 안 되는 피카소는 당신에게 넘겨준 문구가 정말 잘 만들어진 글 같다는 것이다....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다. 나라도 피카소보다는 샤갈의 색채을 갖고 싶으니까.

전북 방문의 해에 걸맞게 박물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다. 전시연계체험과 공연 그리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당일 여행, 3차에 걸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있고 2012 세계 미술 거장전/한옥마을 당일 여행등의 프로그램으로 먼 곳에서 오는 관람자를 위한 배려도 있었다. ▣



여인의 베일을 벗기는 목양신 - 피카소



장 뒤뷔페, Site frequente, 1981




세계미술거장전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이 열린 - 전북도립미술관



피카소 '광대의 초상(Tete d' Arlequin)

- 전시기간 : 2012.1019~2013.02.17
- 장소 : 전북도립미술관
- 거장전작가 명단 (35명, 98점)

Edouard Manet(에두아르 마네), Camille Pissarro(카미유 피사로), Paul Cezanne(폴 세잔)

Toulousse-Lautrec(툴루즈 로트렉), Pierre Bonnard(피에르 보나르), Lyonel Feininger(라이오넬 파이닝거)

Piet Mondrian(피에트 몬드리안), Pablo Picasso(파블로 피카소), Erich Heckel(에리히 헤켈)

Maurice Utrillo(모리스 위트릴로), Sonia Delaunay(소니아 들로네), Josef Albers (요제프 알베르스)

Marc Chagall(마르크 샤갈), Marcel Duchamp(마르셀 뒤샹), Joan Miro(호안 미로)

Lucio Fontana(루치오 폰타나), Jean Dubuffet(장 뒤뷔페), Ruchard Lindner(리차드 린드너)

Francis Bacon(프란시스 베이컨), Willem De Kooning(윌렘 드쿠닝), Victor Vasarely(빅토르 바자렐리)

Roberto Matta(로베르토 마타), Robert Motherwell(로버트 모더웰), Antoni Tapies(안토니 타피에스)

Roy Lichtenstein(로이 리히텐슈타인), Larry Rivers(래리 리버스), George Segal(조지 시걸)

Robert Rauschenberg(로버트 라우센버그), Pierre Alechinsky(피에르 알레친스키) Andy Warhol(앤디 워홀)

Robert Indiana(로버트 인디애나), Helen Frankenthaler(헬렌 프랑켄탈러), Jacobo Borges(하코보 보르헤스)

Valerio Adami(발레리오 아다미), Jacques Monory(자크 모노리)

# 제1회
# 전주한옥 아트페어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전주=뉴스와이어) 제1회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개막식이 '12. 10. 5(금) 14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쉼터 특별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전주공예품전시관, 한국미협 전북지회 · 전주지부, 전북민미협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10. 5~10. 10, 10. 12~10. 14. 2차에 걸쳐 펼쳐진다.'청년작가 미술장터 Yaaf!!(Young artist art fair)'란 제목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만 40세 미만 전북지역을 연고로 한 젊은 작가를 초대해 전북 미술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작가들은 사업의 특성에 맞춰 순수회화를 기반으로 한 만 40세 미만으로 한정됐다. 선정된 작가는 개인 14명, 단체 2팀으로 개인부문은 강소이, 권아리, 김가혜, 김미라, 김수현, 김태이, 송지호, 오유미, 유기준, 이보영, 이봉금, 장우석, 조계환, 최지선 등이고 단체는 사색녀, 혜윰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들은 행사기간 동안 한옥마을 태조로쉼터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며, 특히 일자별로 해당 작가들이 전시장에서 작품설명회도 병행할 방침이다. (출처:전주시청)



## 제1회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이병재기자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유광찬)이 주관하는 제1회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가 전주한옥마을 태조로 쉼터 특별부스(전주공예품 전시관 옆)에서 진행된다. '청년작가 미술장터 Yaaf!!(Young artist art fair)'란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만 40세 미만 전북지역을 연고로 한 젊은 작가를 초대해 전북미술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모에 참여한 작가 중 전문가의 심사에 의해 지역작가 70%, 지역 연고작가 30% 비율로 모두 1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가들은 사업의 특성에 맞춰 순수회화를 기반으로 한 만 40세 미만으로 한정됐다.

선정된 작가는 개인 14명, 단체 2팀으로 개인부분은 강소이, 권아리, 김가혜, 김미라, 김수현, 김태이, 송지호, 오유미, 유기준, 이보영, 이봉금, 장우석, 조계환, 최지선 등이고 단체는 사색녀, 혜윰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들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12일부터 14일까지 2차례 한옥마을 태조로쉼터에 마련된 특별 부스에 전시될 예정이며, 특히 일자별로 해당 작가들이 전시장에서 작품설명회도 병행할 방침이다.

심홍재 아트페어 코디네이터는 "출품작들은 이미 작품성이 검증된 작품들로 부담없는 가격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아트페어를 성공적으로 진행, Yaff!이 전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 유광찬 이사장은 "이번 아트페어가 젊은 미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미술발전의 산실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침체된 경기분위기 속에서도 도민들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작품설명회 일정** : 5일 오후 4시 – 유기준, 이봉금, 오유미, 장우석, 김미라, 혜윰
6일 오후 4시 – 송지호, 사색녀, 김수현, 권아리, 김가혜
7일 오후 4시 – 조계환, 강소이, 이보영, 김태이, 최지선

## [새전북신문]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1차전시 호평 이종근 기자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유광찬)이 기획한 '제1회 전주한옥마을 청년작가 아트페어 Yaff!' 1차 전시가 지난 주말 진행된 가운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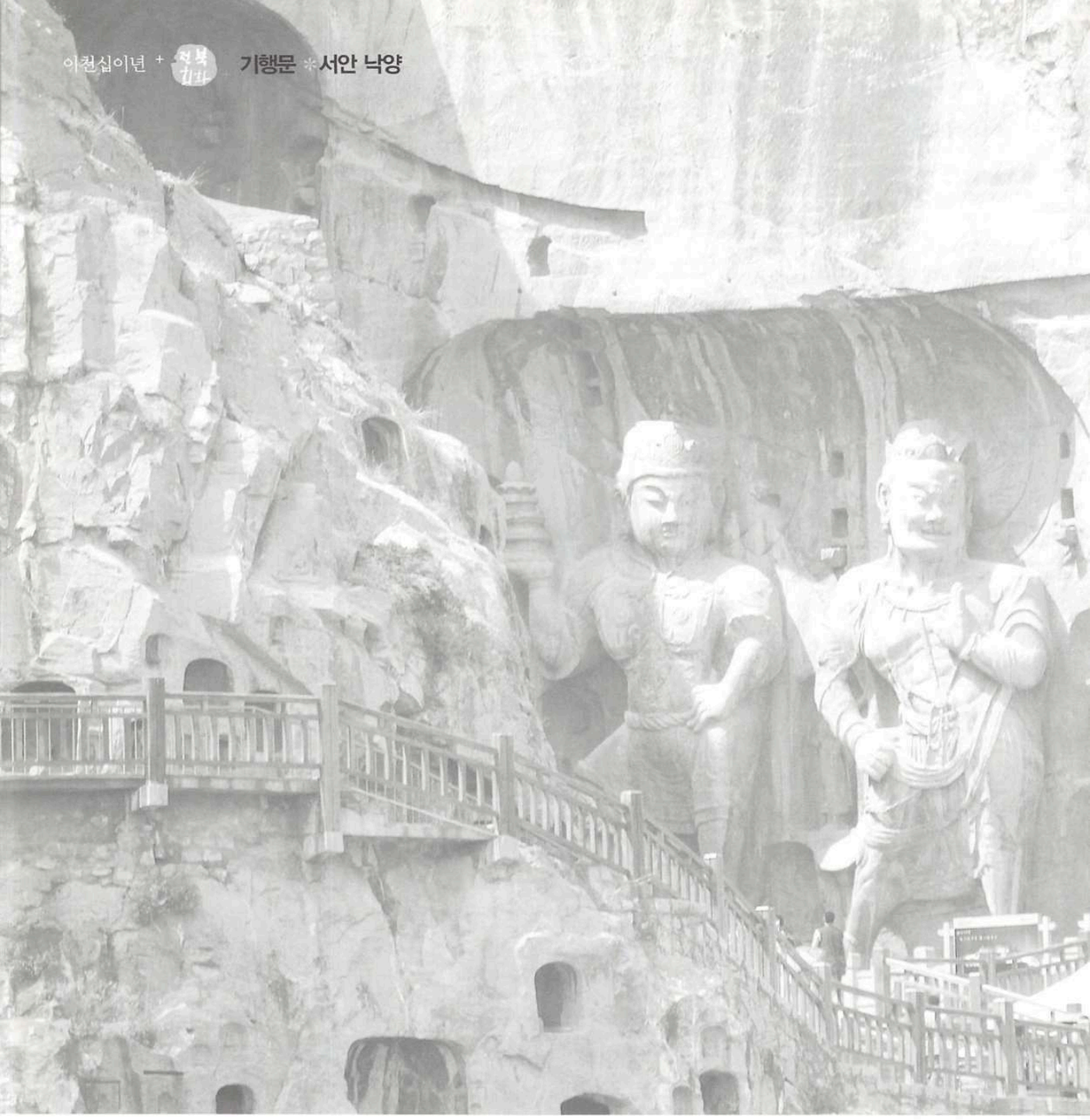
9일 재단에 따르면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쉼터 특별 부스에서 진행된 이번 1차 야외 전시에서 30여점의 작품이 판매, 400여만원에 달했다. 전주시민의 미술품 향유와 소장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신진작가들을 발굴해 전주 미술시장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전주한옥마을 청년작가 아트페어 Yaff!'는 5일~7일에 이어 12일~14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쉼터 특별부스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전북출신 및 타지역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문화재단 권희창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실내 전시장에서 접하는 일반 전시와 달리 다소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그림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적극적 마케팅의 일환이다"며 "이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을 좋은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작가들은 더욱 활발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전북중앙신문] 제1회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성료 이병재 기자

전주문화재단(이사장 유광찬)이 마련한 '제1회 전주한옥마을 아트페어, 청년작가 미술장터 Yaff!'에서 모두 54점의 작품이 판매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마을 태조로쉼터 특별부스에서 5일~7일, 12일~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아트페어에서 참여 작가들은 "전시를 통하여 관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작가들끼리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권희창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미술계와 참여 작가들 그리고 관객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아트페어의 횟수와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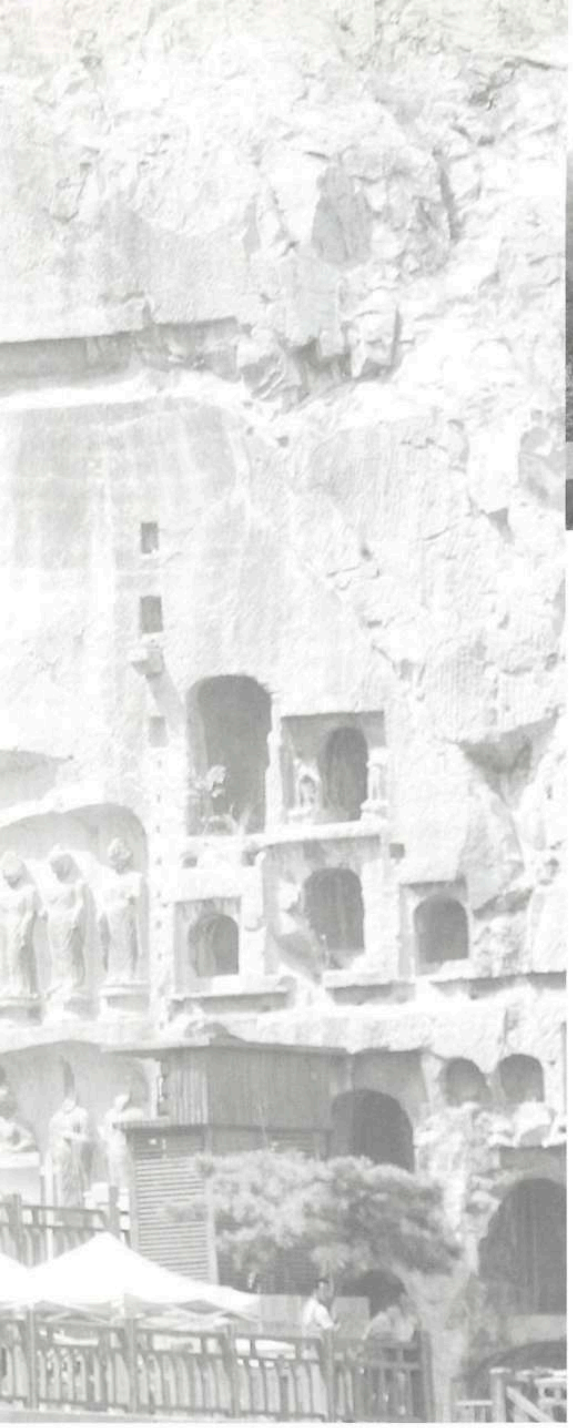
용문석굴

문화 인류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 서안·낙양 ---- 기.행.문

비행기를 탔다. 드디어 모든 것이 비워지는 듯 했다. 그리고 2시간 반 지나서, 서안의 신도시 주변 공항에 도착 한 것은 점심이 되어서이다. 이미 공항에는 서안미술관측에서 현수막을 들고 나와 있었다.

글 **이승훈** (연구회 회원)





고상백

환영식을 조촐하게 하고 산시 성 역사박물관으로 향 하였다. 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갔는데, 중국음식이 벌써 입에 맞지 않았다. 특유의 향료에다가 먹는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산시 성 역사박물관은 고전의 맛을 살린 기와집이었다. 건축물은 거대 했으며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하였다. 그러나 시끄럽고 사람들 어깨가 부딪치고 유물은 많아서 무엇을 볼 것인지 엄두가 안 났다. 조용히 앉은 자리도 벌써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비워 줄 생각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곳에 유물을 보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근방 사는 사람들이 피서 겸해서 놀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물상이 많고 토우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고대 사람들은 마(馬), 우(牛), 양(羊), 용(龍) 등과 같이 숭배하던 동물을 명칭으로 성씨를 삼고 있다. 모계 씨족사회에서 온 성씨도 많다. 부수가 '여(女)'가 들어간 성씨가 많다. 강(姜), 요(姚), 희(姬) 등이 있다.

박물관에서 만난 각종 동물 형상과 무늬들은 토템과 관련이 깊으며 시대별 역사의 변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차로 조금 이동하여 주차장에 내리니 갈색 벽돌의 7층탑이 멀리서 은은하게 보인다. 당고종 영징3년(652년)에 세워져 고아한 멋이 서안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 대자은사의 대안탑이 보인 것이다. 누각식 방형전탑이며 주변 건물에서는 이 탑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고 있다. 자은사(慈恩寺)는 수나라 때 처음 축조되다가 당나라 때 대자은사로 확대되어 지어졌다. 현장은 불경을


1


2


3


4


5


6

1)서안미술관측 환영 2)서안미술관 3)미술관에서 기념촬영 4)대안탑 5)대안탑 6)자은사

가지고 귀국하여 장안의 홍복사(弘福寺)에 머물다가 자은사로 옮겨온 뒤 불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대안탑을 지었다. 현장은 당 정관 원년(627년)에 인도로 출발하고 사막을 지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1년을 걸어 천축에 도착하였다. 천축에서 15년 동안 유학하고 70여개국가를 돌아다녔다. 42세 때 650여 부의 불경을 가지고 장안에 돌아와 환영을 받았다. 탑 마당을 비켜서 돌아드니 작은 탑들이 모인 곳이 나왔다. 이곳에서 휴식을 좀 취하였다. 8월은 어디나 덥고 습했다. 끈적거리고 몸은 지쳐가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스스로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도(古都)'에 꼽힌다고 생각한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서기 10세기까지 13개의 왕조나 정권이 서안에 도읍을 정하거나 정권이 들어섰다. 규모면에서 당시 로마의 세배 크기였다. 중국지형에서 한가운데 위치하며 세계문명이 교차하였었다. 희랍계통의 기독교문명과 인도계통의 불교문명, 중동지역의 이슬람 문명, 중국의 유교와 도교 문명이 모두 공존했던 곳이다. 서안 1,1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서주(西周), 진(秦), 서한(西漢), 당(唐)이 가장 흥성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시안을 중심으로 '세계 8대 기적' 중 하나인 진시황 병마용, 고성 벽과 돌로 된 숲 비림, 서유기의 이야기가 있는 현장법사의 대안탑, 앙소(仰韶)와 용산(龍山)문화의 유적지, 진시황릉, 여산릉, 무릉, 소릉, 건릉 등 "오천년의 중국역사를 서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 옛날 강태공이 세월을 낚았던 이수하가 도심을 가로지르고,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중국 산시성(陝西省)의 성도 서안(시안,西安)이다. 가장 번창했던 당대(618~907)에는 장안(長安)이라 불렸던 곳이다. 3,000년 역사의 고도(古都)의 유물은 현재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 **다음날 서안미술관에서** 미술관측 관계자와 전통미술연구회 사이에 워크숍을 가졌고 전시회를 보게 되었다. 서안의 작가들이 모여 현대 미술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우리의 현대미술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통의 색채는 살아 있었다.

오후에는 성벽 주변의 고성벽순성거리를 구경하고 비림에 도착하였다. 안진경의 안근례비, 안가묘비, 왕희지의 대당삼장성교서비, 유공권의 현비탑비, 장욱의 단천자문, 회소의 천자문, 조맹부의 유천관산시와 달마의 모습 등 비문과 탁본들이 있고 경교(초기 기독교)의 초기 모습이 비의 내용에 있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는 781년 세운 비석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관련 유물이다. 로마 네스트리우스파가 기독교를 전도하러 중국에 와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북송 철종(哲宗)년간(1090년)에 처음 지어져 현재까지 90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비림은 현재 7개의 대형 진열실과 8개의 회랑 그리고 8개의 비정(碑亭)에 한대부터 청대까지 2,300여 개의 비석을 수장하고 있으며, 그 중 1,000여 개를 전시하고 있다.

저녁때는 고성벽(古城壁)과 장안문을 살펴보았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가장 큰 고성벽이다. 성벽의 주변 길이는 약 13,7km이다. 성벽은 129m 거리를 두고 적대 1개를 쌓았는데 총 98개 적대가 있다고 한다. 서안의 동서남북 4개 성문은 각각 정루, 전루, 자루 등 3중 성문이 있고 성벽 외측 벽이 있으며, 고성벽 주변으로 강이 있고 성문 맞은편에는 수시로 내릴 수 있는 조교가 있다.

● **다음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챙겨서 버스에 올랐다. 먼저 찾아간 곳은 진시황병마용전시관이다. 빗길로 3개의 문을 지나니 병마용 전시관이 나왔다.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여 보고 싶었던 곳이다. 병마용이란 흙으로 빚어 구운 병사와 말을 가리키는데, 불멸의 생을 꿈꿨던 진시황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을 지키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규모와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서안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30km, 진시황릉에서 북동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고,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현재에도 발굴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3개의 갱이 발견되었으며, 700여개의 실물 크기의 도용(陶俑)과 100개가 넘는 전차, 40여필의 도자기로 된 말, 10만 여개의 병기가 발굴되었다. 병기들 대부분이 실제무기이며 현재는 창고에 보관 중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도용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 복장, 머리모양을 갖고 있어 그 섬세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더 이상 발굴을 멈춘 곳도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발굴된 병마용의 색채가 변하여 없어지는데 아직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다음 찾은 곳은 진시왕릉이다. 일본인이 옛 기록을 통해서 복원을 한 것인데 사실 시신은 없는 곳이며 산으로 보인다. 멀리서 바라다 볼 수밖에 없었다. 비는 내리고 시간은 쫓기어 기념사진만 찍었다. 중식 후에 낙양 가는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현종과 양귀비의 일화가 남은 화청지 등은 귀로만 보았다.

서안은 생각보다 고전적이지도 않고 세련된 도시로도 안보였다. 그것은 구도시의 흉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거대한 조각상을 세우거나 건축물 지붕에는 고대 건축의 장식을 살린 모습으로





8



9



10



11

7)한 · 중 미술교류 협의회 8)중국측 부관장 9)협의회 10)서안미술관 11)서안미술관 작품 12)서안미술관





석굴 파노라마

짓고 있었다. 거리는 차량과 오토바이, 인력거, 삼륜차, 사람들이 마구 엉키어서 다니고 황사 같은 안개가 항상 괴롭히고 있었다. 거대한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자본주의 국가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점입가경이다. 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도 중국인의 말에서 나왔다. 중국 동진의 화가인 고개지는 감자(甘蔗,사탕수수)를 즐겨 먹었는데 가느다란 가지부터 먼저 씹고 뿌리 부분을 나중에 먹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물어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처음보다 갈수록 단맛이 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사실 사탕수수는 뿌리 부분이 더 달다. 그래서 경치나 문장 또는 어떤 일이 갈수록 상황이 재밌거나 진하게 전개됨을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차로 밤에 낙양에 도착했고 다음날 이른 아침 백마사로 갔다. 백마사는 낙양 시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12Km)에 있다. 백마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절' 이다. 백마사가 창건된 때가 후한(동한)시대인 68년이다. 지금으로 부터 2,000년 전이다. 스님이 경전과 불상을 백마에 태우고 낙양에 도착하였는데, 이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관청에서 숙소를 제공한 것이 백마사의 시초라고 한다. 연꽃은 피어 절 앞을 장식하고 사람들은 사진 찍는데 정신이 없었다. 향불을 진하게 피워대고 있으며 아담한 멋은 없어 보여 아쉬웠다.

- **다음은 용문석굴로 향하였다.** 낙양의 용문석굴은 둔황의 막고 굴, 대동의 윈강 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었다.

시인 조지훈은 그의 수필 '돌의 미학' 에서 "돌에도 피가 돈다. 나는 그것을 토함산 석굴암에서 분명히 보았다. 양공의 솜씨로 다듬어낸 그 우람한 석상의 위용은 살아 있는 법열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했다. 나도 동감하여 감상했었다. 여기 석굴의 불상은 피가 도는 것은커녕 외롭고 고행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왜 일까? 작은 것은 손가락만한 것부터 큰 것은 아파트 크기만 하다.

인체중 머리 부분이 다량 파괴 되었는데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손괴되고 근래에는 모택동 시절, 홍위병들이 불상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파손하여 온전히 남아 있는 얼마 안 된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불상은 당나라의 여자 황제 측천무후가 조성한 불상이다. 내가 이 많은 불상을 만난 것은 처음 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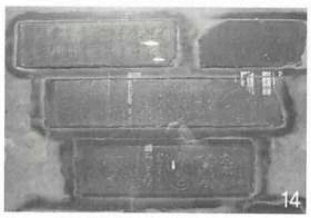


용문 파노라마

많은 조각상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난 적이 있고 깨어진 불상은 경주 박물관 정원에서 일 것이다. 그래도 머리만 없고 다른 부위는 있으니 천만 다행한 일인가. 바티칸 피오 클레멘티노 박물관에서 만나는 벨베데레의 토르소는 몸통만 남아서 고고학자나 감상자 들은 저마다 영감을 불어 넣어 한 마디씩 댓글을 달았다. 미술용어인 토르소는 이탈리아어에서 잔가지를 꺾어 내고 남은 통나무 혹은 과일의 씨앗 정도의 말이라 한다. 온전한 상을 기대하려면 이탈리아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미켈란젤로의 다윗과 반디넬리의 헤라클레스 등 남쪽 회랑에 조각상이 즐비하고 빼어난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용문 석굴의 불상들은 토르소가 아닌 몸을 보여주며 이 험한 길목을 지나는 실크로드의 입성자들에게 염원과 안심의 위로를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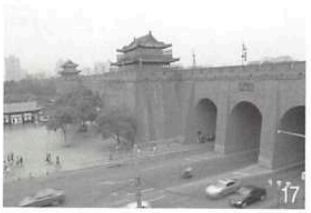
낙양은 북망산이 있는 곳이다.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에 간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낙양 북쪽 산으로, 후한(後漢) 이후 왕공(王公)귀족(貴族)의 묘가 많은 곳이기에 우리나라 김세레나의 노래인 성주풀이에도 나온다. "낙양성 십리 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에서 나오는 저 무덤은 이곳 북망산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영화를 누리던 왕과 왕족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 곳이다. 당나라 때 안녹산과 사사명이 저지른 반란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참사가 만 8년간 이어져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안녹산이 당나라 용병제도로 군대에 들어 온 것은 그의 특유한 재치와 큼직한 몸매로 익살스러워 뭇 대신이 반대를 불구하고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양귀비의 양자가 되기도 했다. 그는 돌궐과 페르시아인의 혼혈족이었으나 상서좌복야라는 천호 후에 봉해지기도 했다. 그는 현종주변 부패를 척결하고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의 난을 제압하는 명분으로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켜 33일 만에 낙양을 함락하였다. 다급해진 현종은 양귀비와 그의 자매, 황족 등 신하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서남쪽 촉나라를 향하다가 장안에서 백 여리 떨어진 마외역에서 굶주린 이들 호위병이 불만을 터뜨렸다. 사태가 양국충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양국충 목을 베고 현종의 앞길을 막았다. 그리고 양귀비도 죽여야 한다고 하여 현종은 눈물을 머금고 양귀비의 목을 매라고 명하였다. 양귀비는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안녹산은 다음해 정월 스스로 황제로 칭하며 국호를 대연, 연호를 건무로 하였다. 그는 현종의 뒤를 이은 숙종 지독2년에 둘째 아들 안경서에게 피살 되었고, 안경서는 759년 사사명에게 살해되었다. 사사명 또한 절도사이며 돌궐사람이다. 그 또한 대연황제가 되었으나, 그 또한 아들에게 살해되었다. 이 난을 안사의 난이라고 한다. 부질없는 정권욕이었다.


13


14


15


16


17


18

13)비 14)비림 15)백마사 16)장안문 17)고성벽 18)병마용

백거이가 양귀비와 현종의 비극적인 사랑을 장한가로 만들었다. 장편 서사시 장한가의 마지막 구절에는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는 연리지가 되기를 원했네.' 가 나온다. 이 연리지를 상징이라도 하는 듯 소림사 상주원 내에 연 리지 나무가 서 있다. 서로 다른 나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무술도 중요하고 면벽수행도 중요 하겠지만 서로 다른 것끼리 사랑으로 화합하고 화평을 누리라는 뜻일 것이다.

백거이는 당나라 시인이다. 유교적 이상주의를 내세워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풍자시를 짓고, 백성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 했으며 죽음 문제로 유교에서 도교와 불교 교리에 관심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다. 장안을 벗어나 58세에 낙양으로 가서 시와 술과 거문고를 벗 삼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향산사에 자주 찾았으며 스스로 향산거사라고 하고 75세에 향산사 옆에 묻혔다. 향산사는 용문 석굴 앞 강 너머의 산에 있는 절이다. 백거이 무덤은 백원(白園)이라는 정원에 있고 예전에 장개석 별장으로도 사용된 곳이라 한다.

삼국지가 바로 이 낙양을 주 무대로 펼쳐진 것이다. 후한 말, 각지에서 일어난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천하의 호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조조와 유비, 관우, 장비 등이 이곳에 인생을 걸었던 것이다.

낙수(洛水)의 양지(陽)에 자리 잡고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낙양은 화하문명(華夏文明)의 주요 발상지 중 하나로 허난 성(河南省) 서부의 황하 중류에 위치해 있으며 중·서부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13개의 왕조가 이곳에서 수도를 삼았었다. 애달픈 역사도 전한다. 측천무후 때에 백제가 망하고 의자왕이 낙양으로 끌려와 측천무후 앞에서 항복 식을 하고 낙양에서 죽어 유명한 북망산에 묻혔다. 신라의 김춘추가 군사 원조를 청하러 측천무후에게 매달린 곳도 낙양이다.

낙양은 모란(牡丹)의 도시이다. 모란의 꽃말은 부귀이며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오늘날 중국화이기도하다. 간쑤 성, 산시 성, 쓰촨 성, 산시 성 등 중국 북서지역이 원산지로 알고 있다. 신농본초경에도 단피라는 약재로 쓰이며 관상용으로 재배되어 헌상 품이 되기도 하였다. 측천무후가 즉위 시 아직 겨울이라서 모란이 피지 않아서 그 꽃을 볼 수 없게 되자 연회를 그치게 하였다. 측천무후의 딸 태평공주가 비위를 맞추는 말을 했다. "꽃들이 폐하의 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마음에 드는 듯 했다. 중신은 "초목이 피고 지는 것은 하늘의 섭리"라고 간언 했다. 그러나 측천무후는 공주의 말에 따라 꽃을 피우게 하라는 시를 짓게 하고 황궁 화원에서 불살라 꽃신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게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꼴들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금세 축하연을 다시 열게 되고 겨울 빛 속에서 매화, 복숭아, 자두, 살구, 해당화, 작약, 장미 등 온갖 꽃이 펴서 자신의 위대함을 즐겼다. 그런데 모란만은 피지 않아서 노하였다. 그래서 화원 내 모란을 모두 뽑아서 낙양으로 추방했다. 그 뒤에 모란은 낙양화라 불렸다. 불에 타서 가지가 검게 그을린 모란의 자손을 초골 모란(焦骨牡丹)이라 부른다.

모란은 수나라에 이어 당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 모란이 아니면 꽃이 아닐 정도이다. 대사원과 왕후 귀족의 정원에 진귀한 꽃으로 피어났다. 한 송이에 수천 수만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모란 꽃말에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미녀, 왕자 내지는 가장 뛰어난 자, 부와 영애의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는 천년제도 목단화성 (千年帝都 牧丹花城), 즉 천년간 제국의 수도였고 모란화 만발하는 꽃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꽃은 없고 실사 출력한 꽃 사진은 벽에 붙여있고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 조화들이 상점에 있을 뿐이다.

● 다음으로 간 곳은 소림사이다. 중국 제 1의 선종 사찰이자 소림파 무술의 발원지인 소림사는 정주와 개봉 사이에 있는 등봉시(登封市) 중악숭산(中岳嵩山)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소실산(少室山) 아래의 무성한 숲속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소림사'라고 불리게 되었다.

북위 태화 19년(495년)에 효문제가 인도 승려 발타대사를 위해 지어졌으며, 중국 선종의 조정이 되었다. 소림사하면 달마대사가 떠오를 정도로 달마대사의 면벽(面壁) 수련은 널리 알려져 있다.

면벽 수련은 9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면벽은 움직임이 없는 벽과 같이 정신의 동요가 없게 하는 수련 과정이다. 면벽을 마친 후 신체가 많이 약해진 달마대사는 건강회복을 위한 신체수련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되어 소림파 무술의 일부가 되었다. 달마대사의 면벽 수련과 함께 또 유명한 것이 그의 제자 혜가의 이야기이다. 혜가는 달마대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가 받아줄 것을 청하였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하늘에서 붉은색의 눈이 내리면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주저 없이 혜가는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서 쌓여 있던 하얀 눈 위를 붉게 만들어서 달마대사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한다.


19


20


2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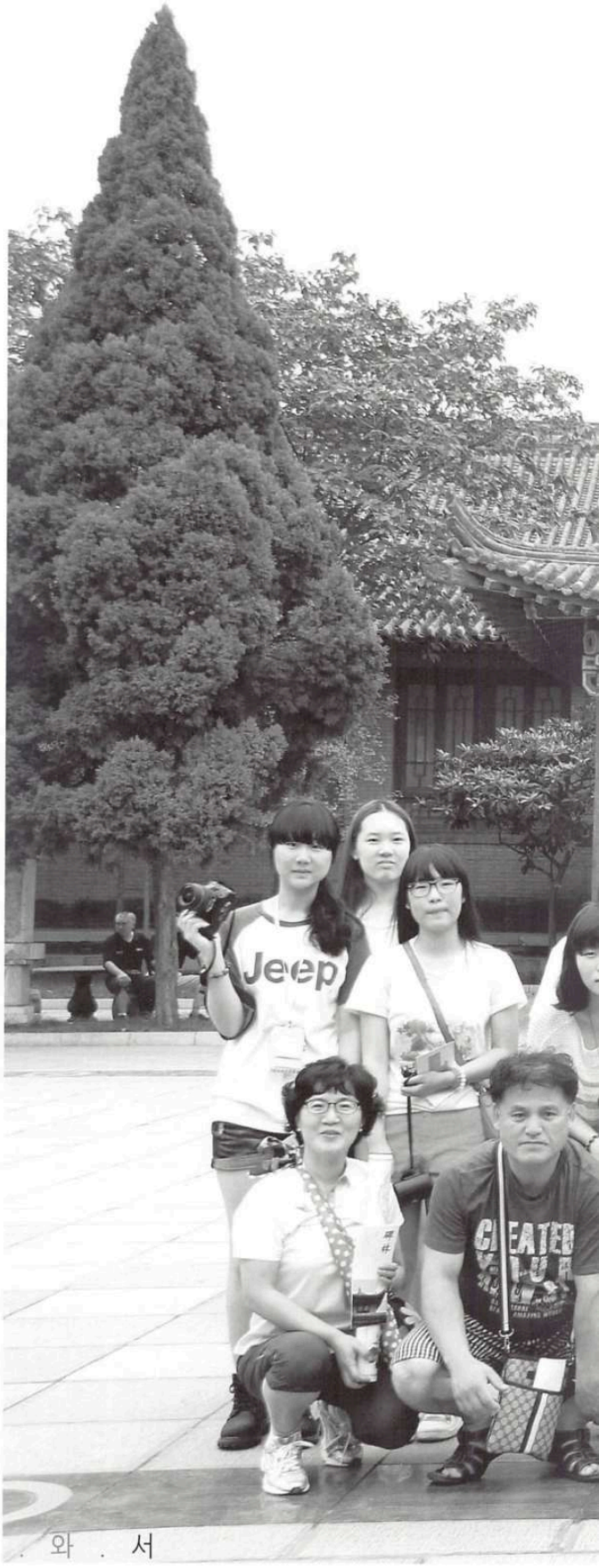

23

19)병마용갱 20)병마용마차 21)백마사 입구 22)용문석굴 입구 23)용문석굴 24) 소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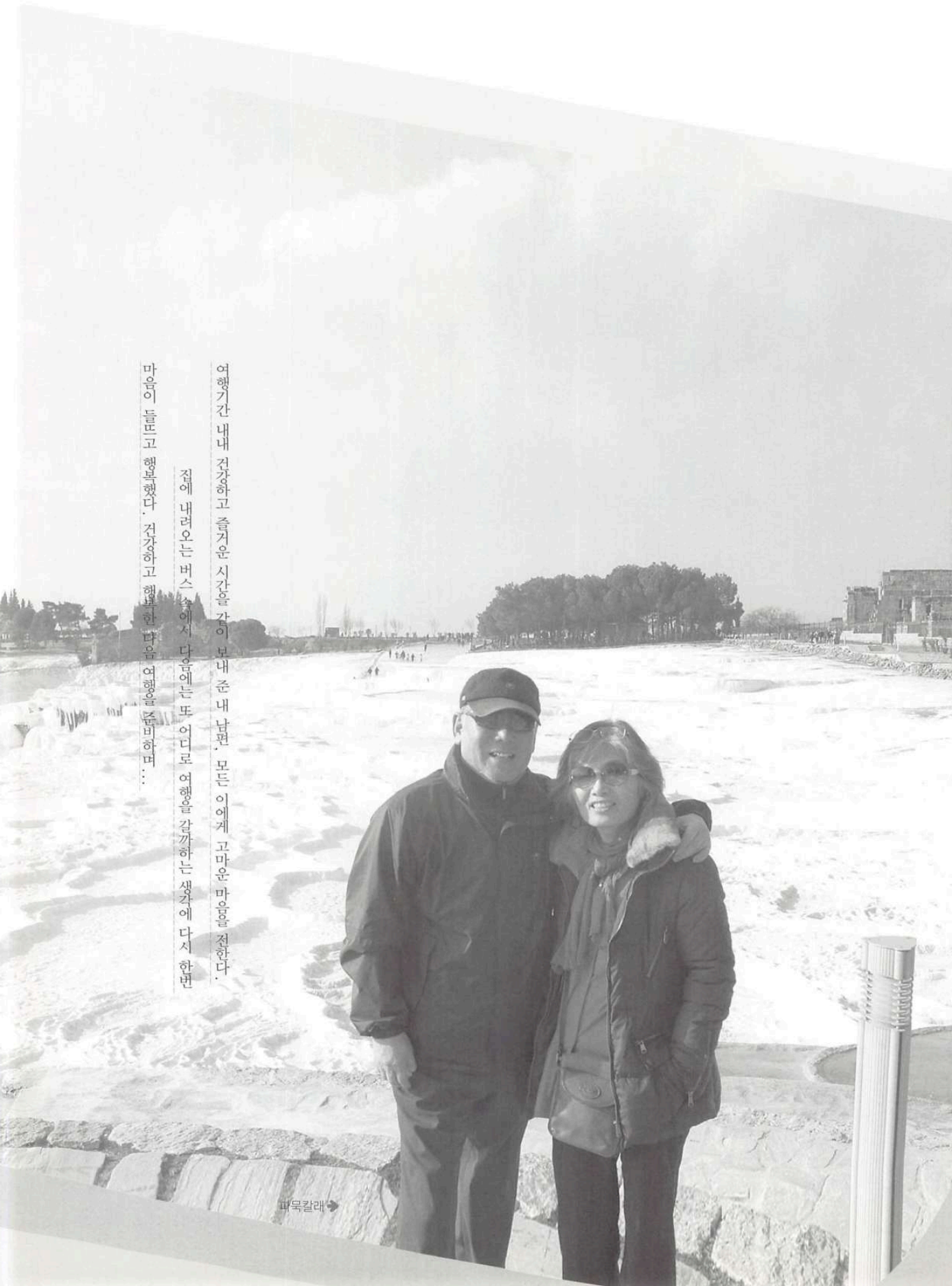
24

● 이번 여행은 동서교류 출발점의 실크로드의 도시이며 인류의 다양한 문명을 발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작의 기회가 되고 각 지역별 건축과 조각, 각종 공예 미술품들을 보면서 동양과 서양의 혼합된 독특한 양식을 감상하고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었으며, 대안탑, 용문 석굴 등 오늘 날까지 잘 보존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며 오늘날까지 후대에 남겨져 자손들을 살리고 있음을 통해 문화에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척박한 대지에서 삶을 영위 하는 모습을 통해 기다림과 여유 등을 생각할 수 있었으며, 전통미술 연구회를 통해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미술교류를 통하여 보다 많은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여 보다 성숙된 생각과 태도로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 되었으며 앞으로 서안 청소년 학생들과 우리 전북의 청소년 학생 작품으로 교류를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세계적인 보편성을 찾아가면서 문화 인류애를 함께 공유하고 사고를 발전 시켜 평화와 새 문화 창달에 앞장 설 것으로 본다. ▣




서 . 안 . 낙 . 양 . 을 . 다 . 녀 . 와 . 서


碑林



여행기간 내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 준 내 남편.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집에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다음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갈까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이 들뜨고 행복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다음 여행을 준비하며…

파묵칼래



# 꿈에 그리던 여행

## 2012년 2월 터키여행을 다녀와서

**이진숙** (전북회화회 회원)

'엄마, 아빠랑 터키 여행 어떠세요'
터키라는 말에 철없이 흥분 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항은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마력이 있다. 비행기에 올라 타 11시간도 잠깐인 듯 , 식사 두 번, 간식, 때때로 음료수 몇 잔, 화장실에 두어 번 다녀오니 어느덧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마음이 급하다. 신비의도시, 콘스탄티노플의 모습이 보고 싶다.

역사가 500년이나 되는, '그랜드바자르' 재래시장에 들렸다. 15세기부터 동·서 문화가 모이던 곳으로 4,400여개의 크고 작은 점포가 들어있다. 중·근동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란다. 가는 곳 마다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친다. 그리고 '형제의 나라' 라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녹두로 만든 약간 짠맛이 나는 스프와 '난' 비슷한 빵과 야채를 곁들인 샐러드, 볶은 밥과 구운고기, 그리고 과일 등이 나오는 비교적 풍성한 저녁식사로 터키 여행이 시작되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에게해, 지중해, 흑해, 마드마라해를 모두 접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절묘하게 담고 있는,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공존하는 신비한 나라이다. 97%는 아시아, 3%는 유럽인 나라. 그러나 EU에 가입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축구도 유럽리그에 남고 싶어 하는 나라다.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나라답게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척 많다. 덕분에 나는 심한 멀미때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스탄불에서 트로이유적지로 향했다. 기대가 컸다. 트로이목마.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에게게 이것이 트로이 목마야?' 일행들이 일제히 실망을 토해냈다. 트로이 목마를 세우기 위해 공모한 결과 초등학생의 작품이 선정 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세워졌단다. 세계3대 썰렁 유적지 중 하나란다. 믿거나 말거나.

목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트로이 유적지는 절망 대단했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기원전 3,000년부터 로마시대까지 무려9번이나 켜켜이 세워져 쌓인 세계유일의 도시란다. 호메로스가 쓴 '오딧세이 일리아드' 라는 서사시로 만 알고 있던 이곳이 많은 유적이 남아 있진 않지만 한곳에 3,300년간 9개의 왕조가 변영과 멸망을 거듭했다니.....

복원된 곳도 있으나 아직도 군대군대 돌덩이들이 나뒹구는 모습이 안타깝다.

다음 일정을 위해 버스를 탔다. 버스가 가는 내내 에게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 지난여름 스페인 남부 네르하 해변이 생각났다.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으로 나갔다. 에게해에서 본 일몰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새벽4시 call, 5시 아침식사, 6시 출발, 악마와 같은 일정이다. 터키는 워낙 큰 나라여서 이동거리가 꽤 멀다. 성지순례객이 꼭 거친다는 에페스에 가기 위해서다. '에페스'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이름이기도 하다. 수 천년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고대도시이다. 로마보다 더 로마답고 그리스보다 더 그리스다운 곳으로 수많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에페스 유적지 거리를 거닐면서 '히드리아누스신전', '원형대극장', '셀수스 도서관', 특히 이 도서관은 발견당시 장서 1만2,000여권이 보관되어 있었고 습기를 막기 위해 벽이 이중으로 만들어 졌단다. 오데이온, 언덕의 한 면을 깍아 지른 듯이 놓여 있는 이곳도 1,4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음악당이다. 그 당시 각종 공연이나 귀족들의 회의가 열렸으나 계단의 좌석에 쓰였던 대리석들은 후에 다른 건물을 짓는 자재로 쓰여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단다. 또 그 당시 귀족들이 사용했다는 목욕탕과 공중화장실 등 많은 공중시설이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터키의 과거역사 유적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다.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이룩된 문명들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다시 태어나 수많은 문화유산 덕에 세계인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곳이니.....

터키여행에서 가장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곳이 '파묵칼래' 라는 곳이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스키장인 줄 알았다. 높은 언덕에 하얀 눈이 쌓여 있어 마치 '대관령스키장' 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보니 곳곳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른다. 바로 석회붕과 노천온천이다. 발을 무겁게 감고 있던 신발을 벗고 족욕을 했다. 마치 눈밭 속에 온천이 있는 것 같은 곳에서.....땀이 살짝 나면서 피로가 풀린다. 숙소에 들러 짐을 풀고 시내에 나가 유명한 양고기 갈비와 에페스 맥주 한잔하고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

오늘은 버스를 무려 5시간을 타는 날이다. 바닷 속에 잠겨버린 슬픈 도시 '케코바' 를 보기위해서.....찬란한 비잔틴문명을 자랑하던 이 도시는 지진 때문에 물에 잠겨 버렸다.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바닥으로 보이는 물에 잠긴 마을 보니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스럽다.

유럽의 여느 도시들처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뉘어 있는 안탈리아라는 도시에 왔다. 이곳은 지중해가 펼쳐져있어 여름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여름에는 인구가 220만명이었다가 겨울에는 40만으로 줄어드는 곳이란다. 지중해연안에 있는 공원에서 '쫀득쫀득 아이스크림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인다. 터키인 아이스크림장수가 하는 소리다. 참 재미있다 우리도 그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서 먹으며 즐겁게 산책을 했다. 이곳에는 에페스 유적지에서 보았던 '하드리아누스 '신전의 문이 있는데 로마시대 만들어진 문으로 옛 그리스마을과 로마마을을

구분 지었던 문이란다. 식사 후 지중해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는 길에 맥주 한잔으로 피로를 풀었다.

안탈리아에서 버스로 4시간을 가는 동안 끝없이 평야 지대가 펼쳐진다. 가도 가도 끝이없는 평야가 때로는 눈까지도 피로하게 만들기도 한다. '콘야'라는 대평원을 지나 다시 버스로 3시간여를 달려 사랑스럽고 신기한 땅 '카파도키아'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중앙에 펼쳐진 기암지대로 버섯모양의 기이한 기암절벽과 그 안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프레스코벽화, '카이막흐르 지하도시' 등을 볼 수 있었다. 수억 년 전의 화산분화 후 오랜 세월의 침식으로 인해 만들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특히 '괴레메 야외박물관'은 4세기부터 그리스도교 수사들이 암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동굴 안에 프레스코화를 남겼다. 이 지역에는 30개 이상의 암굴교회와 벽화가 유명하다. 그리고 '카이막흐르 지하도시'는 기원 전 400년에 쓰여진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곳인데 그리스도 교인들이 종교적 탄압을 피해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양치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곳은 어지러운 미로가 있고 지상으로 통하는 몇 개의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지상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만들어 졌다. 예배당, 학교, 침실, 주방등 대규모 공동생활 흔적을 볼 수 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터키도 와인이 유명하다는 말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호기심으로 와인바에 들려 양고기와 white wine으로 피로를 풀었다. 정말 좋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가장기대를 했던 열기구투어를 위해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를 무릅쓰고 열기구 타는 곳으로 향했다. 많은 걱정이 앞선다. 높이 올라가서 멀미하면 어떡해, 열기구가 추락하진 않을까 등 등..... 높이 올라갈수록 눈앞에 그리고 발밑에 파노라마처럼 전개되는 경치에 탄성을 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1시간여의 비행이 끝나고 무사히 지상에 착륙하자 모두 모여 삼페인을 터트리며 자축했다. 참으로 색다른 경험이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터키 사람들만 마신다는 특이한 커피를 마셨다. 커피분말과 설탕을 함께 갈아 특수주전자에 끓인다. 커피를 마신 후에는 잔을 받침위에 엎어놓아 잠시 후 커피가 흘러 생긴 흔적으로 운수를 읽는다는 관습이 있단다. 특이한 커피가 매력적이었다.



▲ 가파도키아 열기구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도착하여 멋있는 호텔에 짐을 풀었다. 저녁 식사 후 일행 중 한분인 멋진 노신사와 우리내외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근처 PUB에 갔다. 담배연기와 사람들로 가득해서 시끌벅적한 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터키인이 친절하게 도와주어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친절을 받아보면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

다음 날 우리는 이스탄불을 가는 도중 '한국공원'이라는 곳에 들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참전하여 전사한 터키군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으로 전사자의 이름이 터키어와 한국어로 새겨져있다. 거의가 20대 초반, 간혹 30대도 있다. 지금도 비행기로 무려 11시간이나 걸려 도착하는 머나먼 곳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에 서슴없이 참전해 전사한 이들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다시 버스를 타고 무려 6시간이나 이동하여 이스탄불로 향했다.3%인 유럽 땅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을 다리로 연결하여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가 된 곳 이스탄불.

드디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야소피아'에 갔다. 가기 전부터 소피아라는 말에 흥분이 된다. 터키여행에서 다른 곳은 모두 제쳐두고 소피아사원에만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 내가 직접가게 되다니..... 비잔틴시대 건축물중 가장 우월하고 이스탄불의 상징이며 그리스 정교의 총 본산으로 군림하다가 이슬람사원으로 바뀌는등 여러종교에 이용되었으며 오늘날 터키를 대표하는 건물이 되었다. 모자이크장식이 된 예수와 마리아의 모습, 이슬람고유의 문양,등 내 욕심 같으면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기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히포드럼'광장으로 향했다. 로마시대 전차경주가 펼쳐졌던 곳이다. 광장에는 3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의 '카르나크신전'에서 로마황제에 의해 운반되어 온 것으로 '테오도시우스1세의 오벨리스크'로 불린다. 한 가운데 있는 기둥은 콘스탄티누스1세때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신전'에 세워졌던 것을 가져온 청동제 뱀기둥이다. 가장 안쪽의 돌을 쌓아 올린 오벨리스크는 콘스탄티누스7세가 만든 것이다. 이곳이 그 당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곳인지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이스탄불 야경 관광에 나서 다시 한번 소피아사원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탁심광장'을 걸어 이슬람의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곳 터키도 젊음의 물결은 거부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피에르 로띠 언덕'에 올랐다. 어느 곳을 가나 남녀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시대가 변하여도 듣는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언덕도 프랑스 남자 '피에르 로띠'가 사랑한 터키여인과 올라와 사랑을 나누었었다는 곳으로 무슬림여인을 사랑한 남자의 애절한 사연을 간직한 장소란다. 그 마음 아픈 사랑을 생각하며 보스포러스해협을 바라보고 마신 한 잔의 홍차가 오래오래 생각난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 되었다.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해협을 유람했다. '소가 건너는 얕은 땅'이라는 뜻의 이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는 이로 하여금 여러 가지생각을 하게 만든다.

서양인들이 '블루모스크'라 부른다는 '술탄아흐멧사원' 등을 관광하고 점심 식사 후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갔다. 서툴고 귀여운 한국말을 쓰는 가게주인과 흥정을 벌여 가며 터키식 커피 끓이는 주전자와 어느 곳을 가나 내가 꼭 사는 에스프레소커피잔, 그리고 터키인들이 매일 서너잔 씩 마신다는 차이(홍차)잔을 샀다.

집에 돌아가 장식장에 진열 해놓고 보면서 그 찻잔에 차와 커피를 마실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톱카프궁전'에 들렀다. 오스만왕조 지배자의 궁전으로 400년간의 영화를 보여 주는 곳이다. 궁전 구경보단 보석관에 마음이 간다. 커다란 에머랄드가 박힌 황금단검,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평범한 내 눈에는 그냥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일 뿐이다.

10여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다.

꿈에 그리던 여행을 행복하게 끝내고 느긋한 마음으로 비행을 즐겼다. 기내에서 먹는 비빔밥, 해산물요리, 간단한 음료들, 이런 것들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눈을 감으니 눈밭 같았던 '파묵칼레', 난생처음 타 본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너무 어이없어했던 '트로이목마',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카이막흐르지하도시', 내 눈을 호사시켰던 '톱카프궁전의 보석관', 그간에 먹었던 에페스 맥주, 와인등,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소피아사원'의 모습들이 영화를 보는 듯 스쳐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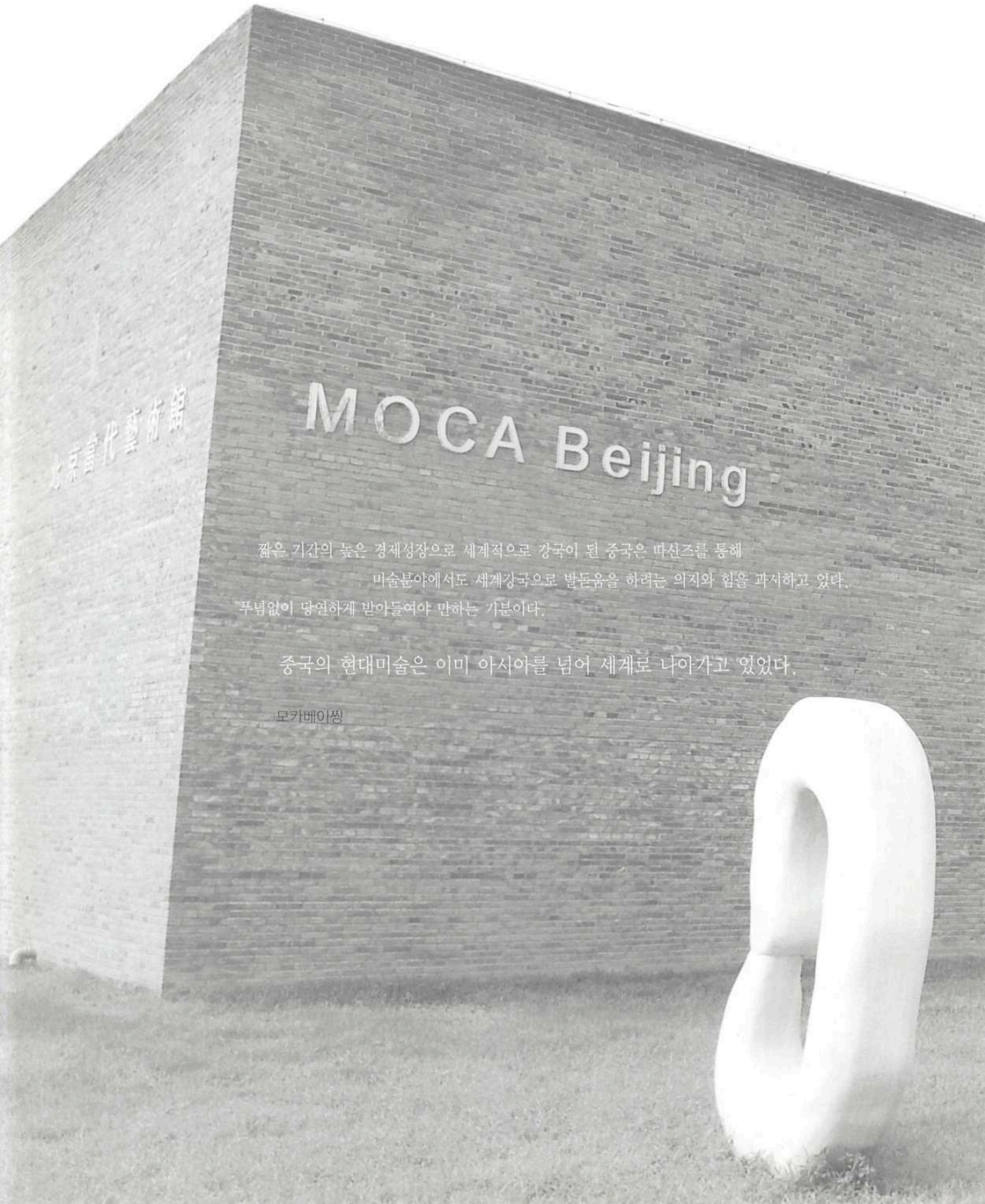
엄마, 아빠에게 이런 호사를 시켜 준 나의 딸.

여행기간 내내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 준 내 남편,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집에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다음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갈까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마음이 들뜨고 행복했다.

건강하게 다음 여행을 준비해야겠다. ▣

소피아사원 야경






짧은 기간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중국은 따산즈를 통해
미술분야에서도 세계강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있다.
푸념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만하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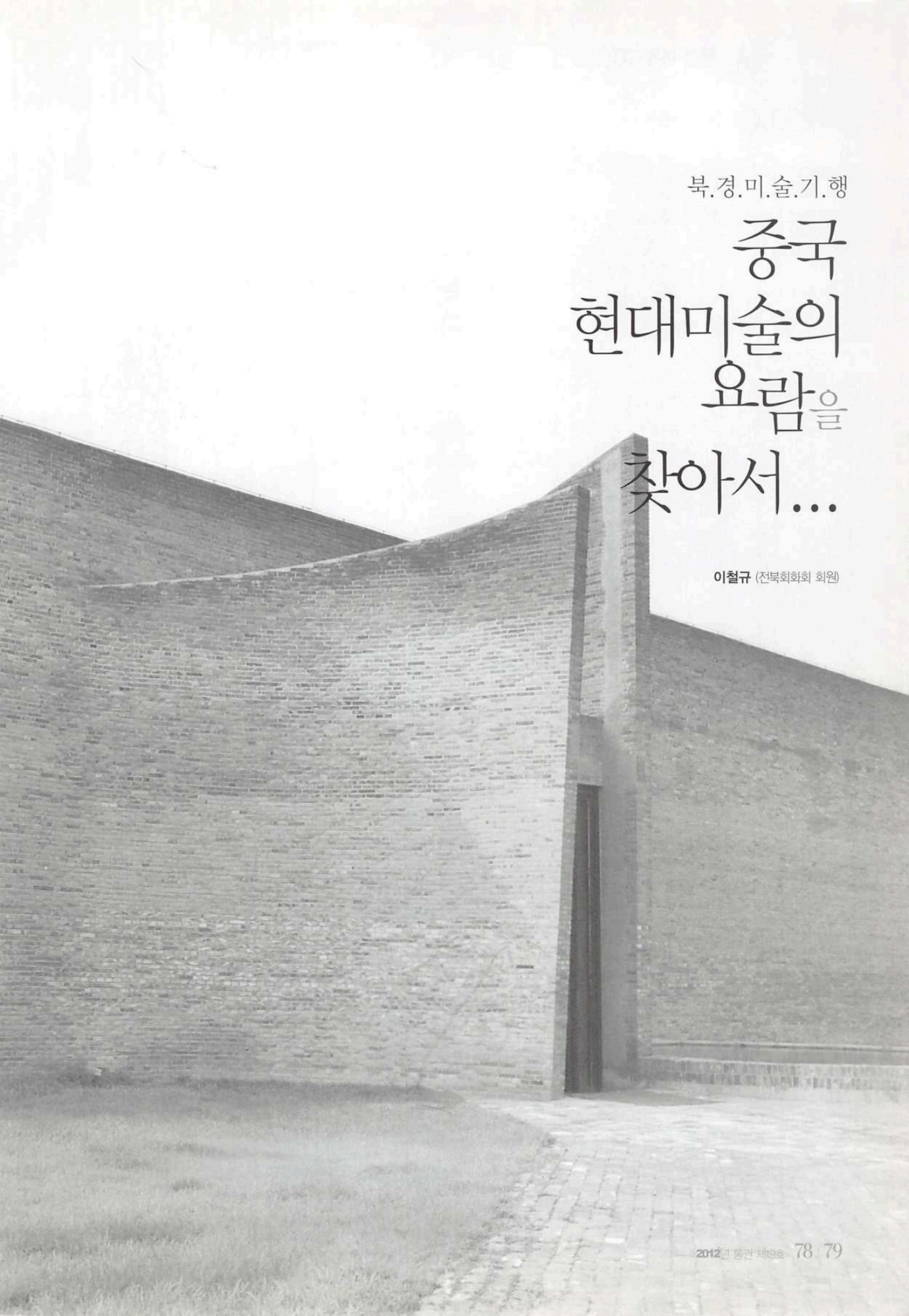
중국의 현대미술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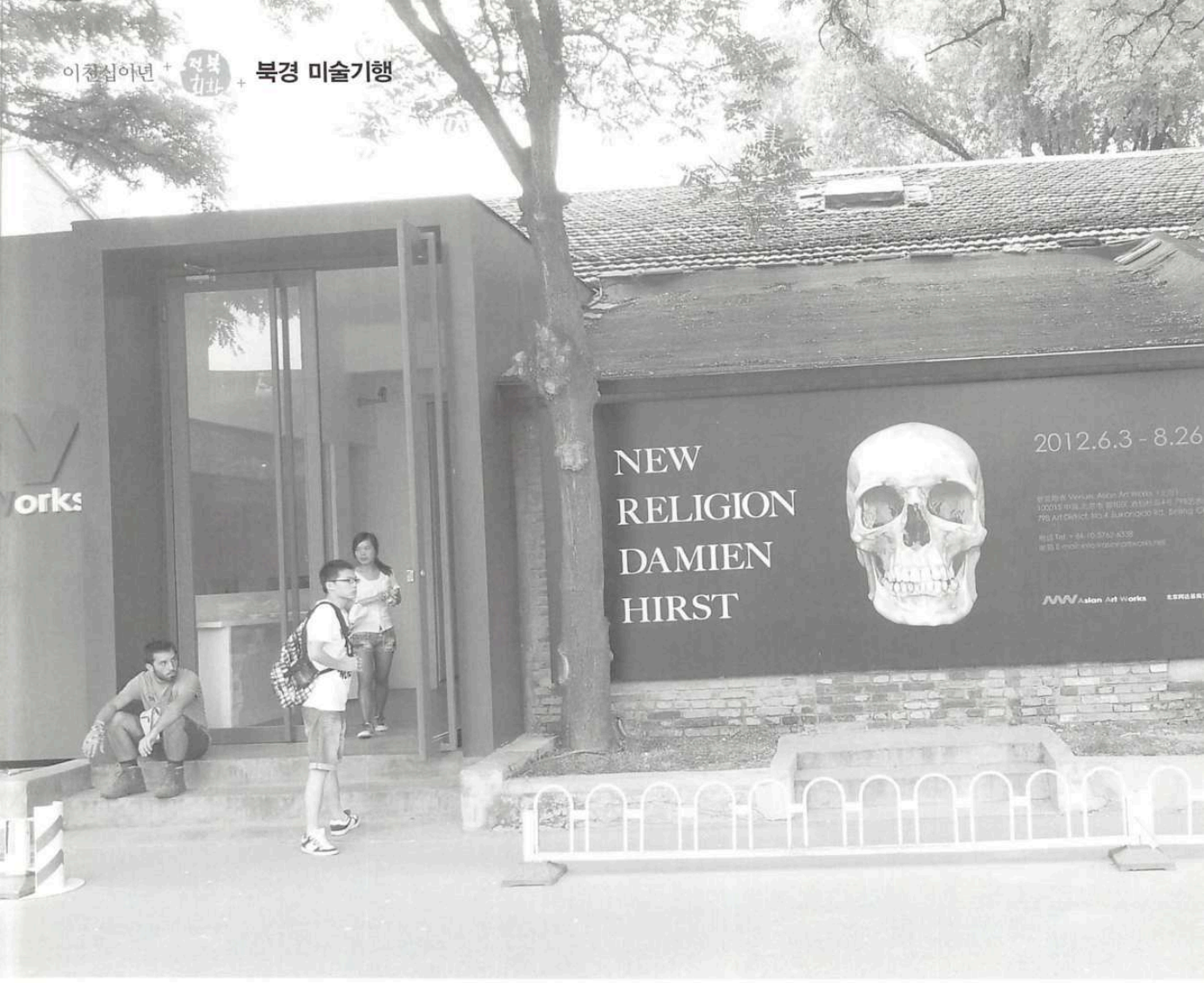
모카베이찡

북.경.미.술.기.행

# 중국 현대미술의 요람을 찾아서...

**이철규** (전북회화회 회원)






데미안 허스트전시가 열리고 있는 AAW화랑

현재 세계미술시장에 막강한 화교자본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현대미술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생겨날까? 그 힘은 자본만으로 될 수 없는 터 중국미술을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저변요소들-예술특구, 미술관, 화랑, 작가작업실, 전시회 등 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우진문화재단에서 역대 청년 작가 초대전 선출되었던 작가들을 모아 중국의 현대미술의 심장부이자 요람인 북경시의 예술특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미술기행을 마련하여주었다. 신진작가들에서 중견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과 연령층이 참가한 명실공히 전북미술의 대표주자들의 해외 첫 나들이 이었다. 인원구성도 좋았지만 전북미술의 현주소와 나아가 한국미술의 전반적인 것들을 중국미술과 비교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에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여행이었다. 특히 본인에는 과거 십여 차례의 중국여행을 하였지만 실로 북경이라는 곳은 처음이었고 게다가 미술분야를 집중적으로 탐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어찌 가슴이 부풀지 않았으리,,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사실상 나에게 있어서 중국미술은 그리 큰 기대치로 다가오지 않았다. 중국미술에 대한 선입견이랄까? 그 동안 중국여행으로 얻은 지식으로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사회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 있고 무언지 모르게 개방의 자유스러움 중에 사회를 통제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왔던 터 이러한 느낌들이 미술에도 적용되어 중국미술이 계속 발전되어 왔지만 그 한계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아직은 한국미술이 다양성면이나 표현의 자유에서도 그래도 중국미술보다는 한수 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해서,,,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알량한 기대는 첫날부터 곧 무너졌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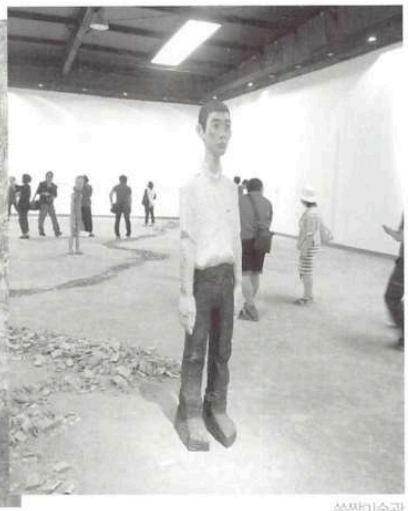
### 방공호위에 지은 작가촌, 쑹장 예술구.

첫날은 북경시 외곽에 위치한 쑹짱 예술구를 탐방하였다. 쑹짱예술구에는 쑹짱미술관, 상상국제미술관, 모카베이징 등의 미술관이 소재해 있으며 과 방공호 위에 건립한 작가 촌이 있는 곳이다.





중국미술관, 이소가 선생과 함께.



쑹짱미술관

마침 쑹짱 미술관에서는 후엉 지타오(黃智滔)작가의 설치개념의 목 조각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미술관을 들어가는 입구 그 크기부터가 범상치가 않다. 넓은 계단을 내려가 접하게 된 전시실 크기와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압도적이다. 이런 규모의 전시장을 작품으로 채우려면 우선 작가들의 역량이나 스케일부터 커야 할 터 이러한 공간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작가들의 역량도 세계에 어느 미술관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배가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천 전시 관람부터 중국의 크기에 놀랐다.

이러한 큰 규모의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접한 중국현대미술의 소감은 뭐랄까? 상당히 실험적이면서 자유스러움, 그리고 개성이 잘 표출되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북경을 오기 전에 가졌던 중국미술에 대한 나의 좁은 소견 – 즉 여실히 현실을 보지 않고 추측으로 상황과 조건을 판단해 미리 선입견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느끼면서 말이다.

앞으로 열거될 다양한 북경 예술특구와 미술관에서 보게 될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약간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다.

중국의 현대미술의 시점은 일반적으로 1898년에 열린〈89 중국현대미술전〉을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일어난 같은 해 1989년 일명 '세상을 바꾼 해'라 칭하는 천안문(天安門)민주화운동과 비견되고 하는 데,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정치사회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였다면 가오밍루(高名潞)의〈89 중국현대미술전〉은 미술을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조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전시이었던 것이다. 단지 20여년의 기간을 통해 중국의 현대미술이 현재의 이 수준까지 성장하였던 것이 마치 중국의 경제성정과 맞물려 급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20여 년 동안의 압축성장한 중국의 현대미술을 첫 전시장 쑹장 미술관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 규모가 마치 조그마한 학교 운동장을 크기를 방불케 한다. 첫날 중국북경 쑹짱미술관과 모카베이찡에서 접한 전시는 현 중국의 현대미술의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다음 날 북경 최대의 박물관인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중국 서쪽 당나라 수도였던 서안(西安)에 있는 박물관보다는 유물들의 수가 적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수도에 있는 박물관답게 건물 내의 천정 높이나 전시벽면 크기

등등 그 규모는 일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다. 하지만 내용보다는 남을 보여주기 위함인 강한지...중국답게 좀 과도하다싶다.

그리고 찾아간 중국미술관은 마침 중국의 근현대 미술가의 전시가 기획전 형식으로 열리고 있었다. 중국 당대 최고의 수묵화가 인 이가염(李可染)의 이들 이소가(李小家)의 개인전과 함께 중국의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소가 선생의 담담한 필력으로 한필 한필 힘 있게 그려낸 수묵담채 실경 산수화작품은 보는 이를 압도할 정도로 눈앞으로 다가온다. 종병(宗炳)의 화산수서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이 모필(毛筆)의 표현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거침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1000호 이상의 대작이지만 작품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대충 그려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참으로 오랜만에 수묵산수화의 진수를 보는 것 같아 눈을 세안한 기분이 든다. 한편 이렇게 현장 사생을 바탕으로 수묵화의 기본인 모필을 사용하여 자기만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작가나 작품을 한국에서는 접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 아쉬움만 남는다.

## 중국현대미술의 요람 따산즈 798을 보고 느끼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따산즈(798지역)는 그 규모나 한곳에 집합시킨 기획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무언가 서양과는 다른 중국스러움을 느꼈다.

북경 조양구에 북동쪽에 위치한 따산즈 798지역은 군수공장지역 이었다. 1950년대 구소련이 원조하고 구독일(독일민주공화국)이 설계를 맡아 바우하우스(Bauhaus)양식을 바탕으로 지어졌으며, 신중국전자 공업의 요람으로서 무선통신설비, 탱크 등을 제조했던 군수공장지역이었다. 1990년대 들어와 북경시 제2차 산업의 쇠퇴에 따라 798지역에는 빈 공장이 늘어났으며, 1997년 중국 중앙미술대학교의 수건국(隋建國)交手가 30여명의 강사와 같이 빈 공장을 임대하여 작업실로 사용하면서 예술지역으로의 변화가 시작 되었다한다. 본격적인 예술특구로서의 형성은 2002년 798공장의 소유주인 북경칠성화전과집단이 이 공장 빈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장 일부의 빈 건물을 예술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였고, 이후 가난한 예술가들의 입주신청이 몰려들면서 부터이다. 이후 2006에는 북경시 정부시책으로 798예술특구를 '문화창의산업기지로' 로 공식 지정하였고, 2008년에 시작된 북경시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통해 약 5억 위안(한화 600억원)을 지원하면서 현 상태의 예술구를 조성하였다. 따산즈예술구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예술구로 하루 2~3만, 798페스티벌 시기에는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한다. 2008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도로 및 경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후 지금은 200여개의 창작실, 400여개의 갤러리, 50여개의 패션샵 이외에도 창작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디자인 및 광고 회사, 출판사 등이 입주해 있다. 또한 160여개의 국제 미술품경매가 성황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2조원 규모의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다한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막대한 예산 투입과 서구의 상업예술자본과 상업시설이 입주하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점점 상업적인 관광지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썩 좋게는 다가오지 않는다. 마치 현 한국 서울의 인사동을 보는 기분이랄까!

따산즈에서의 갤러리 방문은 처음부터 강렬하였다. 따산즈 초입에 있는 Asian Art Works라는 화랑에서 데미안 허스트(Damein Hirst)의 전시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영국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작가로 해골에 보석을 붙이는 작업으로 유명하며 지금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위해 전 세계유수의 화랑들이 대기하고 있다니 그 유명세가 대단하다.

또한 그의 작품제작을 도와주는 조수가 150여명이나 된다하니 나같이 혼자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부럽기만 할 따름이다.

따산즈의 화랑들은 형형색색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한가지정도의 개성 있는 장식들을 도입하고 있었다. 미국 첼시지역의 화랑들이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는 면과 확연히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미술과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도 있겠지만 개인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현대미술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이자 도발이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일단 북경 따산즈의 화랑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외부장식과 내부 전시공간들로 성공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전시작품들도 기대이상으로 현대미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중국의 현대미술의 높은 이해와 수준을 가늠 할 수 있는 장소이었다.

그리고 방문한 당인미술관, CAN ART화랑, PIN Gallery, UCCA예술중심 등의 미술관 및 화랑은 높은 수준의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방문한 허거짱예술구는 따산즈에 비해 그 규모는 작지만 중국의 또 하나의 현대미술을 추구하는 장소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Found Museum에서 처음 마주 친 프랑스의  조각가 아르망의 작품과 세계유수의 작가의 소장품을 보고 중국의 현대미술의 높은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짧은 기간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중국은 따산즈를 통해 미술분야에서도 세계강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있다. 푸념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만하는 기분이다.

현 따산즈로 대변되는 중국의 현대미술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

(2012. 10 이철규)





# 읽을 만한 책




## 아방가르드와 한국현대미술의 이해

〈저자 하용석 / 제이앤씨커뮤니티〉

이 책은 아방가르드와 한국현대미술이라는 상이한 두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서구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은 끝난 셈이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 인도 미술에 홀리다

〈저자 하진희 / 인문산책〉




영혼을 담아내는 인도 미술을 만나다!
「처음 여는 미술관」시리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미술을 발견하고 창작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제 1권 미술사학자와 함께 떠나는 인도 미술 순례「인도 미술에 홀리다」에서는 저자가 20년 도안 인도를 오가면서 수집한 2,000여 점의 민예품들을 통해 인도 미술의 다양한 세계를 보여준다. 인도에서 민예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낮은 계급에 속해 있거나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의 작품은 현대의 미술품을 압도하기도 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순수한 감각의 힘과, 생활 속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따스함을 전하고 있으며, 하나의 미술품 안에 영혼을 담아내는 인도인의 예술적 삶을 재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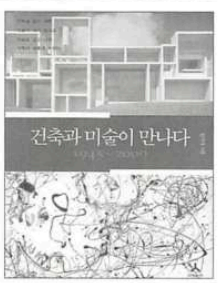

##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2: 통일신라 고려

〈저자 유홍준 / 눌와〉

한국미술사와 대중과의 소통을 시도하다!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저술했을 뿐 아니라,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제2권 '통일신라 · 고려'. 교양과 상식으로서 한국미술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다. 시대적 · 사회적 요구의 부름을 받아 일관된 미술사관을 근거로 한국미술사 통사를 탐구하고 있다. '통일신라의 건축과 왕릉'을 시작으로 석탑 · 석등 · 당간 · 승탑 등의 석조 미술과 불상 등 총 일곱 주제로 설명했으며, 고려의 미술은 '고려 역사의 이미지와 건축'을 시작으로 석조미술, 불상, 고려청자 등 아홉 주제로 살폈다. 유물이 갖는 개별적 특징을 파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역사, 일화 등의 배경 지식을 쌓게 된다. 'History of Korean Art'가 아니라, 'Story of Korean Art'를 지향하고 있다.

##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저자 임석재 / 휴머니스트〉




건축을 알면 미술이 보이고, 미술을 알면 건축이 새롭게 보인다!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시리즈는 건축사학자인 임석재 교수가 건축과 미술을 함께 놓고 그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다. 건축과 미술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찰, 건축과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두 장르 사이의 연관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각 예술 전반으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도와준다.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은 20세기 후반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건축과 미술의 관계를 다루었다. 건축과 미술로 짝을 이룬 총 20개, 40개의 건축가와 미술가를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예술 흐름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조, 개념, 작가, 작품의 모습' 등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강하게 보이는 예를 쌍으로 대응시켰다. 사조가 갖는 시대적 의미와 사조가 추구했던 예술적 고민, 문명에 대해 가졌던 사조의 입장, 대표적 경향, 대표 예술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 미술관 옆 인문학

〈저자 박홍순 / 서해문집 〉

세상을 향한 미술과 인문학의 거침없는 크로스「미술관 옆 인문학」. 이 책은 미술작품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을 시도했다. 다양한 시대와 작가의 미술작품을 함께 감상하면서 그 작품 혹은 작가에게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생활과 연관시켜 보고 그것을 인문 고전으로까지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각 글들은 동서양의 미술작품을 매개로 인문학 고전으로까지 심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직간접적인 경험에 대한 문제의식의 지평을 사회적 · 철학적 영역으로 확장한 후, 관련한 인문학 고전의 핵심 대목에 접근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이론적 · 실천적 의미를 각 주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술작품을 통한 인문학의 접근은 딱딱함과 지루함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찬찬히 고민하는 지적 여행의 재미를 제공한다.

# 전북회화회 주소록

| | |
|---|---|
| **고형숙** | 561-77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 5동 1501호 (016-653-1833) |
| **김서영** | 138-751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금호Ⓐ 108동 907호 (010-2610-4264) |
| **박지예** |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코오롱Ⓐ 11/501 (010-2658-7822) |
| **박성수** | 560-011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5-9 (010-9992-3661) |
| **방정엽** | 561-775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 202동 802호 (011-681-7127) |
| **서진숙** | 560-03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3-7 로가 401호 (010-3683-2506) |
| **안순금** | 560-28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번지 (010-2635-6314) |
| **엄기석** | 560-76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우성중산타운 102/1503호 (010-3681-8673) |
| **이광원** | 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A 3/1104 (010-3656-6292) |
| **이명자** | 576-804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68-13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010-8004-5895) |
| **이봉금** | 560-89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안리즈Ⓐ 101동 504호 (010-9277-7231) |
| **이승훈** | 570-090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A 303/607 (010-4115-0577) |
| **이우정** | 560-776 전주시 효자동3가 서곡현대Ⓐ 101/202 (010-3299-2221) |
| **이진숙** | 561-360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번지 (010-4605-9876) |
| **이철규** | 566-820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예원예술대학교 조형미술과 (010-4279-3775) |
| **이철량** | 560-070 전주시 완산구 교동 98-1 번지 (010-3650-9849) |
| **이환배** | 561-86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진흥 W-PAK 107-1101 (010-3673-1562) |
| **윤 호** | 560-021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40-5번지 3F 청미술학원 (010-4654-0971) |
| **정미현** |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 (011-682-3560) |

# 편.집.후.기

은행나무 가로수는 노랗게 물을 들이더니 포도 위를 덮고 말았다.
쇠락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내년을 이미 준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죽음은 종교성을 빼고는 허무한 것이지만,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여행이요 선물이었다고 어느 시인을 말했다.
너무 무거운 말을 했지만 가벼운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막중한 임무가 또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시간들 속에서 이 한 권이 잉태되기 까지
얼마나 힘든 것을 감내 했는지 경험한 사람만 알 것이다.
내년에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올해 돌 하나를 탑에 올리는 기분이다.
죽어가거나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 넣는 창작의 기수들이 너무나 멋져 보인다.
회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자축하고 옥고를 주저 없이 보내주신
김한하님, 전우연님, 김영숙님께 심심한 감사를 올린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조금이나마 작은 보탬이 되고 전북회화회를 기억해주고
우리 그림을 사랑해 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둔중함을 일깨워주고 잘못이 있으면 큰 아량으로 혜념해 주길 바라면서
이만 줄인다.



전북회화

2012년 통권 제19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이진숙
**편집위원** 이광원, 이승훈, 이봉금, 고형숙
**전북회화** 2012년 통권 19호
**발행일** 2012. 12. 21
**대표연락처** 010-4605-9876
**기획,제작** 프린팅헤븐 T. 287-9796, 010-5255-1236

2012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